배인호 초격차 국어 the Final I

1-2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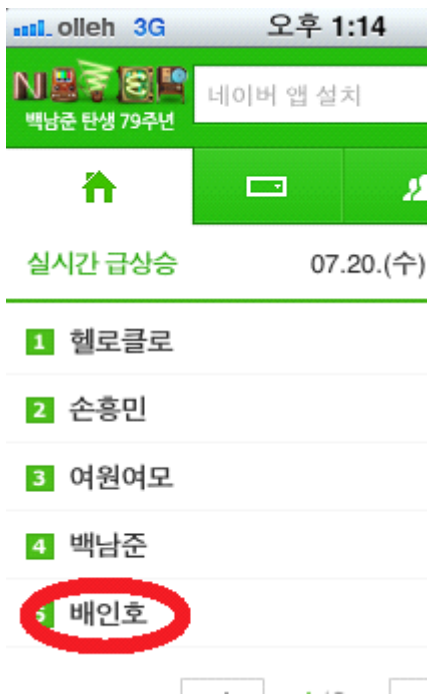
新수능국어와 舊내신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배인호입니다.

16~18시즌에는 2만명,
올해부터는
학생 인증이 된 경우만 자료를 제한적으로 드렸지만,
벌써 2000명이 넘는 현장 강의 / 온라인 라이브와
지속적인 자료를 구독하여 받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무게감을 위해,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인강 시작, 센세이션을 일으켜
신인 강사가 1개월 만에 소속사 매출의 70%,
1타급의 인지도를 갖게 됩니다.



강사가 실검 5위를 했을 정도 (깨알같이 Son! 2위)

사실 신인 강사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남들과 다른 관점과 경험과 준비로 '평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대 국어교육과 수업은
1.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신
   교수님
2. 평가원 임용된 평가원 연구 교수님 (현재 출강 불가)
3. 석박사 연구 및 학계 소장학파

특히 저는 평가원 교수님들 수업을 직접 들으며
일반 전공자들 조차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현재 수능 출제와 관련된 원칙을 게시한 시작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공문서인 '출제매뉴얼'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출제매뉴얼 쓰신 세 분의 교수님 수업을 모두 듣거나 출제매뉴얼
관련한 전공지식/의견을 직접 여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가원 임용된 교수님과
그 교수님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집단 지성을 이루는
교수님 집단이 있고,

저는 참 운이 좋게, 그 교수님들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매주, 최소 2주 1회 이상 파이널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칼럼을 올려, 여러분 국어 학습
방향성을 잡아드리려 합니다.
때때로 내용이 무게 있으니, 가급적 출력하여,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2 국어 영역

#1. 정보처리 능력

과장을 조금하여 설명하면,
많은 학생들은 기출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해설에 익숙합니다.

> ①번 선지는 1단락 ~줄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
> ②번 선지는 2단락과 3단락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③번 선지는 마지막 단락의 첫줄을 바탕으로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정답!*
>
> ④번 선지는 4단락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
> ⑤번 선지는 5단락의 ~줄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리고 누구나 납득되는 당연하게도 맞는 해설 같지만,
이것이 고3 및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절대로 좋은 해설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강사분은 위와 같은 해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틀리지 않은 해설이지 좋은 해설은 아닙니다'[1)]

위와 같은 해설이 좋은 해설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1) 2014학년도부터 수학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M사의 H수학 선생님이 급상승하며, 노량진vs대치동 구도가 완전히 무너져, 대치동 중심의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었고, 2017학년도부터 국어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강민철 선생님'이 대입 사교육 시장 오프라인 최대 수강생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 직접 수업을 듣거나 자료를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운영하던 소수정예 입시코디/독학재수학원생을 통해 전해들은 수능 국어에 대한 가장 혁신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직접 수업/자료는 볼 수 없었지만, 학생을 통해 들은 인상만으로도 많은 '영감'을 받았고, 제 전공 지식과, 경험, 배경, 그리고 과학적 탐구 정신을 바탕으로 집필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현 수능 국어 및 내신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수업과 교재와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1. 시간

1. 80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접근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전에서,
80분에 45문제와 관련된 지문/보기/5선지, 즉, 225개의 선지 처리가 가능할까요?

선지 하나 하나 따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선지를 완벽하게 정보 유무 파악하고,
모든 선지를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100% 확실하 파악이 가능할까요?

#1-2. 독해력

2. '독해력/사고력'이 '단어찾기'수준으로 측정될 수 없음.

위와 같은 접근에 익숙한 경우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결국 선지-지문 발췌독, 와리가리하며,
선지에 있는 정보가, 지문에도 있느냐
극단적으로는 선지에 있는 단어-지문에도 단어가 있나?
싶은 '시각'정보의 유무 수준에서 처리됩니다.

독해력과 사고력이 있으면 도움은 받겠지만,
과연, 천재들의 집단인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께서,
독해력/사고력 측정을 위한 시험을, 단지,
*단어 유무 일치 시험*으로 전락시켰을까요?

80분에 45문제와 관련된 지문/보기/5선지, 즉, 225개의 선지 처리가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답을 충분히 아래의 여백에 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봅시다.

Q1. 평가원이 측정하고자 하는 국어 능력이란?

수능 국어영역 체계 〈내용영역〉/〈행동 영역〉 이원분류표

행동 / 내용	개념/어휘	사실적이해	추론적이해	비판적이해	적용/창의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예를들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입시에서 측정하는 능력이
100m 달리기면,
아무리 잘 달리는 학생도
그 100m 달리기에 맞는 연습을 해야하듯

소위 독해력, 논리력이 뛰어나더라도,
수능 국어에 맞도록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입시 방향은 비효율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2. 독해력이 아니라 사고력

독해력(讀解力) :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능력.
독 : 읽고
해 : 이해

하지만 현재 수능 국어에서는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떠한 요소가 있고,
그 요소는 어떻게 교정 해야 할까요?

#1.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처리 능력 = 평가원이 생각하는 국어 능력

#1-3. 정보 가치 판단 능력 = '주제'

2020학년도 9월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소유와 점유'지문에 모르는 어휘가 있어서 찾기 위해

네이버에 '소유'를 검색해봅시다.

어그로가 끌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어학사전'탭이나, '지식백과'탭을 누르겠죠.
하지만 집중력이 약한 우리는 시스타 소유가 예뻐서 이미지를 클릭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정보처리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처리 능력이 극명히 들어나는 것이 바로... (다음 지문을 풀어봅시다.)

갑자기?
영어???

언어학/논리학으로서의 영어학이 훨씬 깊은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국문학'과 달리, 영어는 논리적 정보 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 그 특성을 국어의 첫 단계로 활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제발...딱 10분만 수업 들어주세요 ㅠ
영어는 물론. 국어에서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8.

With no attempt there can be no failure and with no failure no humiliation. So our self-esteem in this world depends entirely on what we back ourselves to be and do. It is determined by the ratio of our actualities to our supposed potentialities. Thus, ___ _____ . This illustrates how every rise in our levels of expectation entails a rise in the dangers of humiliation. What we understand to be normal is critical in determining our chances of happiness. It also hints at two ways for raising our self-esteem. On the one hand, we may try to achieve more; and on the other, we may reduce the number of things we want to achieve. The advantages of the latter approach lie in the following statement: To give up pretensions is as blessed a relief as to get them gratified. [3점]

① the higher your expectations are, the more you will achieve
② self-esteem can be increased by lowering actualities
③ success divided by pretensions equals self-esteem
④ early failures in life may lead to happiness later in life
⑤ more supposed potentialities increase chances of happiness

역대 수능 영어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서도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문항으로
이미 풀어본 학생들도 논리적으로 정답 선지를 골라내라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학이라는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어 문제 풀이와 영어 문제풀이
국어 능력 영여 능력이 연결됩니다.

1. 단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 처리 방식은
'하향식' 즉, 평가원에서 정의한
독서 :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의 대화적 활동

이라는 측면을
하향식 + 상향식 독서모형을 사용하여

2. 단어 수준부터,
3. 문장수준,
4. 문단-글 수준까지 확장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좌측 문제는 가급적 1:30. 최대 3~5분 사용하여 답 정확히 확신있게 골라주세요!

우선 그 당시 해설을 보면
pretension 이라는
어휘를 출제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강사 분들의 분노가 담긴 해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이는 평가원의 출제 원칙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당시의 풍토 때문입니다.

BNC[2]이라는 영미권에서 가장 권위있는 영어교육 레퍼런스로, 우리 평가원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BCN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보면, 약 2000개 정도의 어휘가 80% 빈도, 약 5000개 정도의 어휘가 98% 빈도로 사용된다. (중략) 따라서,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서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약 5000개 정도의 어휘를 시험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고1 수준의 영어 수업까지 약 2000개 어휘를, 고2~3수준의 영어 수업에서 약 3000개 어휘를 추가로 다루도록 한다. 단, 접두사/접미사에 의한 파생, 합성어, 굴절에 의한 단어는 새로운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매우 황당했던 것이,
저도 수험생 시절에 영단어는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끝없이 암기해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설을 치면서도 나오는 수 많은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매번 멘탈이 터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영단어에도 시험범위가 있었고, 그 영어 단어 시험범위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했습니다.

Q1. 위의 평가원 규정에 따라, 아래 단어 뜻은?

pretension

2) British National Corpus (BNC) - English-Corpora.org

사실 위 단어는

pretension 명사 기망

이라는 매우 생소한, 어려운 어휘입니다.
사기칠 때, 남을 속이는 행위를 '기망'이라 합니다.

아마 생전 처음 보는 단어였을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1타 강사 급 사이에서도 '이 단어 출제자도 모를 걸? 풀어 보라 그래! 이런 걸 내면 어떡해?'
라고 해설하기도 했습니다만...

보이시죠?
기망... 사기치다... 그런데?

단, 접두사/접미사에 의한 파생, 합성어, 굴절에 의한 단어는 새로운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넵

pretend + -sion
~인체하다(동사) + 명사 파생 접미사
가정하다. ~인체하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다...
의 명사형이니
당연히
누군가를 사기치는 '기망' 나옵니다.

즉, 암기로 해결할 단어가 있고
출제 원칙에 따라
접두/접미 파생, 합성, 굴절에 의해 처리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평가원의 출제 원칙의 힘

평가원의 출제 원칙
1. 어휘 시험범위

위의 내용을 다루었으니 이제는 아래 유형에 대해 다룰 차례입니다.

빈칸추론 출제 매뉴얼 내용 그대로 싣습니다.

유형의 특징 : 이 유형은 글을 읽고 빠진 정보를 글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론하는 문제이다.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단어 넣기 유형과 구 넣기 유형으로 나누는데, 후자가 전자보다 비교적 더 어렵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글의 주제나 요지와 관계가 있거나 주요세부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유형별 세부 조건 :

첫째, 지문의 내용과 글의 흐름을 이해한 후, 추론의 기제에 의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

둘째, 글의 핵심적인 내용, 예를 들어, 통제사상 또는 주요 세부 사항의 일부를 빈칸으로 한다. 즉, 지문 가운데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것을 빈칸으로 한다.

셋째, 빈 칸의 바로 앞 또는 뒤 부분만 읽고서도 답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해서는 안 된다.

출처 : 교육과정평가원 외국어영역 출제매뉴얼, 2004년 12월

결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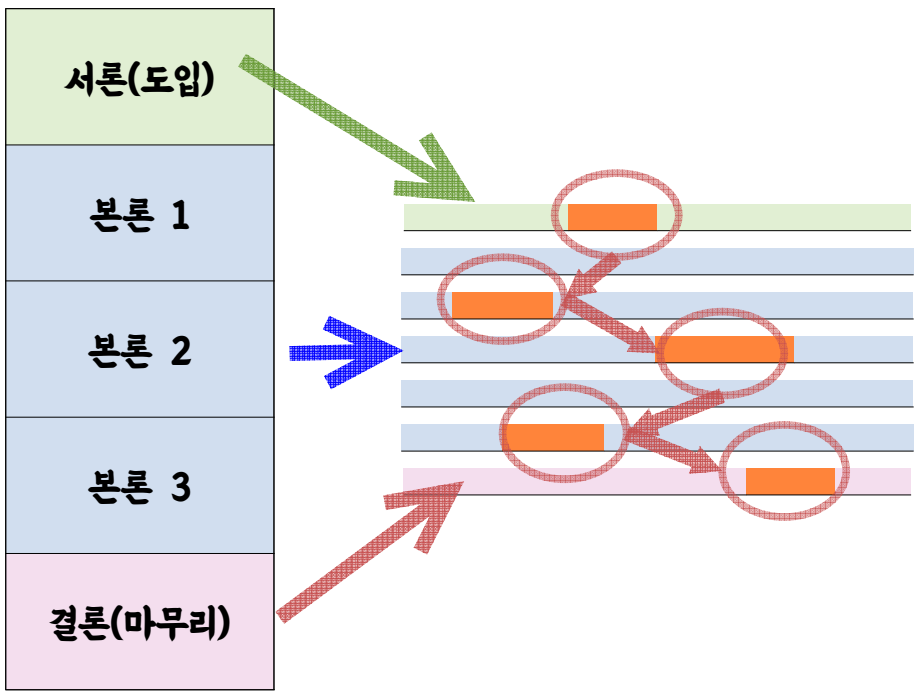
빈칸추론 문제는 주제추론 문제

평가원의 출제 원칙
2. 유형의 출제 의도
'빈칸' = '주제'
= 정보가치 가장 높음

그렇다면 주제를 찾아야하는데
우리가 독서/영어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겠습니다.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글의 구성원리 1. 단계성

글의 구성원리 1. 단계성 은
하나의 글은 단계별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고.
좌측의 하나의 글이 ⇨ 우측 하나의 문단이 되면



위와 같이 한 문단에서 첫 문장이 서론 역할
마지막 문장이 결론 역할을 합니다.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글의 구성원리 2. 통일성

글의 구성원리 2. 통계성 은 주제에 관련된 글의 원칙으로, 하나의 글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에 관련된 소재+서술이 일관성있게 반복
주제에 나머지 세부 내용이 포괄성있게 포함
따라서, 주제는 반복해 나옵니다.
위와 같은 흐름으로!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글의 구성원리 3. 응집성

글의 구성원리 3. 응집성 은 내용 간의 관계, 논리적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역시 응집성을 갖추지 못하면 글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주장 : 현행 대입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근거 : 현행 대입제도는 좋기 때문이다

이런 건 '글'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주장 + 근거라는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폐지 VS 좋다 라는 내용도 보는 것입니다.
즉, 정보는 내용 +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를 처리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응집성의 핵심은 '표지'입니다.
이번 6평 문법 지문이기도 했던,

지시어, 연결어는 물론, 반복, 심지어 생략 표현까지도 표지로 보며, 앞뒤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인데,
단순히 '이어'주는 차원을 넘어
정보간의 관계를 맺어주며
글쓴 사람의 의도까지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를들면, 아래 문장들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정말 자유롭게 써봅니다.

그는 잘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

그는 잘생겼다.
그래서 [ ]

그는 잘생겼다.
그러나 [ ]

그는 잘생겼다.
그러므로 [ ]

그는 잘생겼다.
반면에 [ ]

그는 잘생겼다.
하지만 [ ]

그는 잘생겼다.
따라서 [ ]

이러한 연결사는, 뜻이 아니라 구조와 관계, 즉, 표지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글쓴 사람의 의도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서이기 때문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글의 구성원리 4. 완결성
글의 구성원리 5. 강조성

위의 2가지 구성원리가 더 있으나, 일단 이 지문 적용은 위의 3가지를 바탕으로 갑니다.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의미구조 = 문법구조 = 글의구조 = 언어구조
word => syntax => text => context

의미 전달 구조 단위를 학습하는 분야의 총체는 '통사론' 즉, syntax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추후 드리고. 아래의 의미처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With no attempt there can be no failure and with no failure no humiliation. So our self-esteem in this world depends entirely on what we back ourselves to be and do. It is determined by the ratio of our actualities to our supposed potentialities. Thus, ___ _____ .

사실 아래와 같은 같은 문장을 분석하는 정확한 구조는 syntax로 배워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끊어읽기 기준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수업 주제는 아니니 넘기겠습니다.[3)]
단, 국어에서의 독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수업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no attempt/there can be no failure/and/with no failure/no humiliation.
시도없이는 / 실패는 없다 /그리고/실패없이는/굴욕도없다

So / our self-esteem / in this world / depends entirely on /
conj / det n / prep a n / v ad prep /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 이 세계 안에서 /완전히 의존한다
(인과.순접). 따라서 정보가치 높은 문장.
주어가 가장 정보가치 높으니,
당연히 self esteem 이 핵심.

what we back ourselves to be and do.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지 지탱하는지에 (달려있다)

It/is determined/by the ratio/of our actualities/to our supposed potentialities.
pron/ v / prep det n / prep det n / prep det a n /
그것/결정된다/비율에 의해/우리의 실제/우리의 가정된 잠재성에 대한
=역시 앞 문장 가장 정보가치 높았던 self esteem을 it으로 받으며 반복. 주제 가능성 더 높아졌는데?

Thus, _____ .

바로 뒷문장에 또 이렇게? 인과로 정보가치 높이며
빈칸 = 가장 정보가치 높음 = 주제
결국 글의 주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self esteem 에 해당하는 말.

① the higher your expectations are, the more you will achieve
② self-esteem can be increased by lowering actualities
③ success divided by pretensions equals self-esteem
④ early failures in life may lead to happiness later in life
⑤ more supposed potentialities increase chances of happiness

여기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다면,
여전히 평가원이 생각하는 독해력, 사고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원의 '독서'에 대한 정의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간의 대화적 활동

– 2020학년도 수능대비 학습방법 안내(평가원 공문서)

3)
With no attempt/there can be no failure/and/with no failure/no humiliation.
prep det n /ad aux v det n /conj/prep det n/ det n
시도 없이는 / 실패는 없다 /그리고/실패 없이는/굴욕도 없다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 하는 것을 보통 독해 라고 합니다.

읽을 독
이해할 해

그래서 독해 = 읽고 + 이해

문제는,

읽기를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문제.

이해.

Q1. 이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❶ 글을 읽으면 자동으로 머리가 알아서 처리
❷ 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
❸ 글을 읽고, 읽은 내용에 내가 아는 어휘, 내가 아는 쉬운 말, 내가 아는 배경지식을 연결지으면
❹ 글을 읽되, 배경지식을 철저하게 배제하면
❺ 글과는 상관 없이, 내 배경지식으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e amo porque eres mi ideal
위 문장을 뜻이 무엇일까요?

Te amo porque eres mi ideal
❶ 글을 읽으면 자동으로 머리가 알아서 처리
이렇게 해보시고

Te amo porque eres mi ideal
❷ 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Te amo porque eres mi ideal
❸ 글을 읽고, 읽은 내용에 내가 아는 어휘, 내가 아는 쉬운 말, 내가 아는 배경지식을 연결지으면
이렇게도 해보세요

Te amo porque eres mi ideal
❹ 글을 읽되, 배경지식을 철저하게 배제하면
이렇게도 해볼까요?

Te amo porque eres mi tipo ideal
❺ 글과는 상관 없이, 내 배경지식으로
이렇게도?

느낌오셨나요?

일단 제2 외국어를 공부한 학생은 알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소린지 싶습니다.

하지만,
amo 라는 단어를 아는 학생이나, 어디선가 들어본 학생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ideal 이건 아는 말이네요

mi?
me??
아 영어의 me를 mi로 쓴건가?
맞아요. 정확

amo 사랑
ideal 이상
mi 나?
그러면??

네.

사랑해. 왜냐하면 너는 내 이상형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어휘도 지식의 일부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는 매우 능동적으로 독서하며
새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우리의 기존 어휘력, 배경지식에 연결지어야만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처음보는 스페인어 조차도 말이죠.[4)]

평가원의 '독서'에 대한 정의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간의 대화적 활동

– 2020학년도 수능대비 학습방법 안내(평가원 공문서)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내용도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text{행복} = \frac{\text{충족}}{\text{기대}}$$

이런 공식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Q2. 다음의 경우 우리의 만족도는?
나는 5등급만 받아도 최저를 받고 서울대 갈 수 있다.
수능에 5등급이 나왔다.
나의 만족도는? [ ]%

Q3. 다음의 경우 우리의 만족도는?
나는 1등급을 받아도 백분위 100을 찍지 않으면 정시 서울대 쉽지 않다.
수능에 1등급. 백분위는 96이 나왔다.
나의 만족도는? [ ]%

$$\text{만족도 100\%} = \frac{\text{실제 5등급}}{\text{기대 5등급}}$$

$$\text{만족도 최소 100\%미만} = \frac{\text{실제 1등급96\%}}{\text{기대 100\%}}$$

즉, 실제가 1등급이든, 백분위 99%든, 5등급이든
우리의 기대와 실제와의 관계에 만족.행복은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수식을 만들어볼까요?

So our self-esteem ... (중략)...
It is determined
by the ratio
of our actualities
to our supposed potentialities.

4) 그렇게 배인호는 남미와 사랑에 빠졌다.

self-esteem = ☐ / ☐

즉, 우리의 자존감... 행복, 만족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겠네요.

분모에는 기대, 그러니... 현실이 아닌 것... 그렇다면?
supposed potentialities. 가정된 잠재성.

분자에는 실제. 성취. 이룬 것 ... 그렇다면?
actualities

끝났네요.
이게 바로 주제.

$$\text{self-esteem} = \frac{\text{actualities}}{\text{supposed potentialities}}$$

① the higher your expectations are, the more you will achieve
expectation. 기대. 기대를 높이면,
achieve. 성취. 성취도 높아진다? 상관이 있나요?
내가 기대를 한다고 성취도 높아지나?

$$\text{self-esteem} = \frac{\text{actualities}\ \uparrow}{\text{supposed potentialities}\ \uparrow}$$

② self-esteem can be increased by lowering actualities
자존감은 / 높아질 수 있다 / 실제를 낮춰서?
분자가 작아지면, 전체 값도 작아지니까
자존감은 작아지는데?

$$\text{self-esteem}\ \uparrow = \frac{\text{actualities}\ \downarrow}{\text{supposed potentialities}}$$

③ success divided by pretensions equals self-esteem

$$\text{self-esteem} = \frac{\text{actualities} = \text{success}}{\text{supposed potentialities} = \text{pretension}}$$

정답! 성공 = 즉 성취
기망 = 즉 잠재된 가능성. 아직 실현 안 된 것.
둘을 나누면? 당연히 self esteem 바로 정답 3번!

나머지 선지도 보겠습니다.

④ early failures in life may lead to happiness later in life
일찍 실패하면, 나중에는 행복해진다고?
완전 상관없는... (물론 나머지 내용 엮어서 만든 선지겠쥬?)

⑤ more supposed potentialities increase chances of happiness

$$\text{self-esteem} = \text{happiness}\ \downarrow = \frac{\text{actualities}}{\text{supposed potentialities}\ \uparrow}$$

잠재된 가능성을 높이면... 전체 값이 작아지는데?
행복이 커진다고?

오답률 높을만 하죠?

이렇게 해설하면 꼭

저 그거 수능장에서 쓸 수 있나요?
이런 반문을 하는데

아니...

미적분 개념 진도도 안 나간 학생이
수학 30번 문제 풀이 해설 듣고
저 수학 30분 실전에서 풀 수 있을 까요?

아니 왜 지금 자기 공부가 끝났다, 완성되었다,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유독 국어에서 할까요?

국어가 제일 만만한 과목이시면서
왜 만점자는 65명일까요?
수학은 가나형 2500명 유지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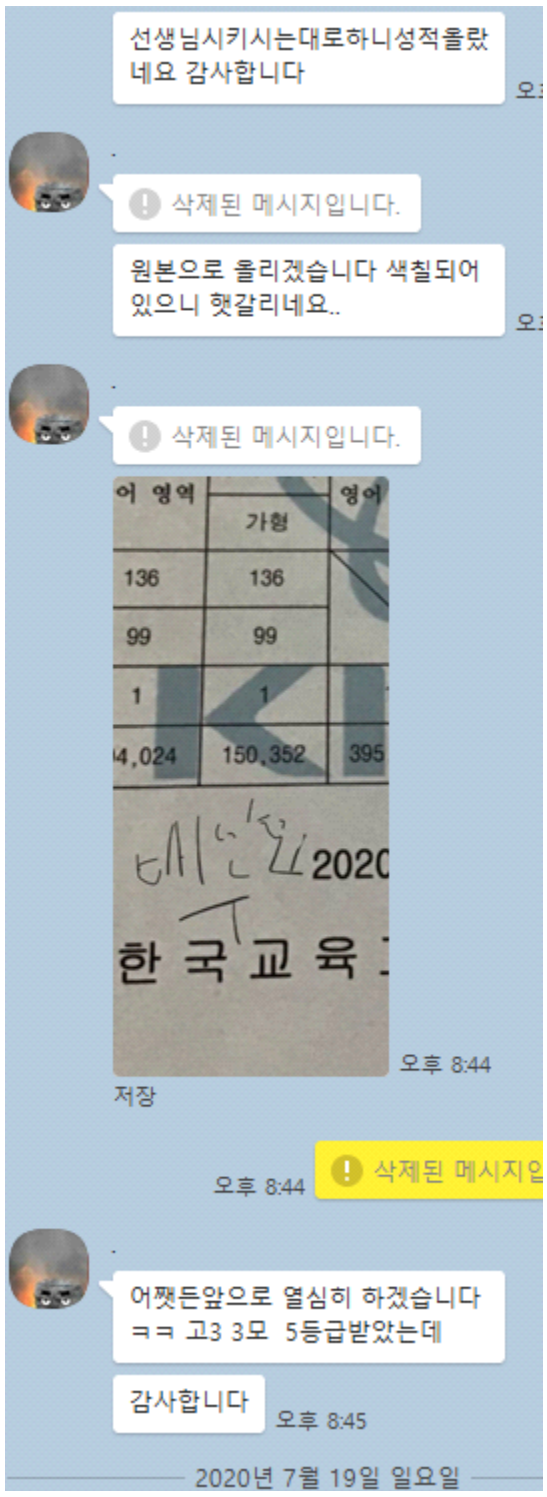
4개월입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시간이에요.

올해 학생.
3월 학평 – 4월에 치고
6월 평가원 – 6월에 쳤으니
사실상 2~3개월 학습 결과

3월 학평 5등급에서
6월 평가원 국어 백분위 99 수학 가형 99 영어 1등급
의대 합격권으로

한 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널에 여러분을 제가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
하나 하나
차근 차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복습 정리 이후
그 다음 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이미 수업 시간에서 다룬 기억이 있는 학생은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넘어갑니다.

#1. 정보처리 능력

#1-1. 시간

1. 80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접근법

#1-2. 독해력

2. '독해력/사고력'이 '단어찾기'수준으로 측정될 수 없음.

Q1. 평가원이 측정하고자 하는 국어 능력이란?

수능 국어영역 체계 〈내용영역〉/〈행동 영역〉
이원분류표

행동 / 내용	개념/어휘	사실적이해	추론적이해	비판적이해	적용/창의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1-2. 독해력이 아니라 사고력

#1.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처리 능력 = 평가원이 생각하는 국어 능력

#1-3. 정보 가치 판단 능력 = '주제'

평가원의 출제 원칙의 힘

평가원의 출제 원칙
1. 어휘 시험범위

평가원의 출제 원칙
2. 유형의 출제 의도
'빈칸' = '주제'
= 정보가치 가장 높음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글의 구성원리 1. 단계성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글의 구성원리 2. 통일성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글의 구성원리 3. 응집성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글의 구성원리 4. 완결성
글의 구성원리 5. 강조성

평가원의 독서/독해 개념/공식
의미구조 = 문법구조 = 글의구조 = 언어구조
word => syntax => text => context

평가원의 '독서'에 대한 정의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간의 대화적 활동

- 2020학년도 수능대비 학습방법 안내(평가원 공문서)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7~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 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 비트(bit) :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②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③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 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29.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②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③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④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⑤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30. 윗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②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③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④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 이다.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아래의 (ㄱ)~(ㄹ)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ㄱ)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ㄴ)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ㄷ) 반지름 5 ㎝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ㄹ) 반지름 5 ㎝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단, (ㄱ)과 (ㄴ)의 전자 e는 동일한 전자이고 (ㄷ)과 (ㄹ)의 팽이는 동일한 팽이이다.)

① A는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B는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ㄷ)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③ A와 B는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④ A는 B와 달리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⑤ B는 A와 달리 (ㄹ)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32.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의거(依據)하면
② ⓑ : 인지(認知)하게
③ ⓒ : 소지(所持)하게
④ ⓓ : 제기(提起)한다
⑤ ⓔ : 부합(符合)한다

*Final 1주차 보충강의 또는, 정규커리1~3주차 보충영상 참조.

이제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 하나당 30초~1분 이내로 작성 바랍니다.

Q1-3. 윗 글의 주제는?

Q1-3-1. 윗 글의 주제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소재는?

#2. 현 시점 평가원 지문의 특징 하나의 글 = 하나의 주제가 아니다. (feat. '상호텍스트성')

사실 좌측과 같이 전체 구조/흐름이 보였다면,
평가원이 생각하는 '독서능력'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학생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읽어가는 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남들도 못하는 상황.
우리가 잘 해내면 됩니다. 5)

오른쪽 지문 구조와 아래의 설명을 비교해 이해바랍니다.
특히, 주황색 흐름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첫 단락부터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라는 공통 주제를 잡고
전체 지문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라는 공통 주제를 잡기에는 뭔가 불안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다른 색 박스로 보이실 겁니다.

정보군집 1. 1단락과 2단락 ⇨ 27번 단독 문항

1단락의 고전역학 vs 양자역학
2단락의 미시세계 vs 거시세계 에 대한
고전역학 vs 양자역학 기반의 관점 대조

정보군집 2. 3단락 ⇨ 28번 단독 문항 + ebs 연계

양자컴퓨터

정보군집 3. 4/5단락+6단락
정보군집 3-1. 4/5단락 ⇨ 29번 단독 문항
정보군집 3-2. 6단락 ⇨ 30번 단독 문항

4단락 고전논리 : 참거짓 구분 vs 비고전논리 : 참 동시에 거짓
⇦ 거짓말쟁이 문장 ⇦ 자기지시적 문장
5단락 자기 지시적 문장 ⇨ 거짓말쟁이 문장 ⇨ 참 동시 거짓 ⇨ 상호 배타적 상태 설명

6단락 전건 긍정 규칙 적용 : LP vs 고전논리

5) 제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의 21학년도 시즌1 재등록률이 99%이상입니다.
시작 때 4~6등급 학생 분포가 약 40%로 가장 많았고
6평 결과 1~2등급 학생 분포가 약 80%로 가장 많습니다.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따라만 오십시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뒷 내용 이전 꼭 중요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정보 처리
수능 국어는 시력 문제
읽고 이해하면 문제 다 풀린다
지문에 근거 다 있다
지문 내용 다 이해하면 된다
결정적으로...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야 한다...
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상당히 괴로운 시간들이니, 읽다 힘들면 29페이지로!

#3. 현 시점 평가원 지문의 특징
더 이상 논리적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모순에 빠져, 결국 출제 오류만 확인할 뿐이다.
(feat. 'AI는 논리+a의 사고를 한다. 인간도 그렇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변혁은
'논리' '합리' '경험' '이성'으로 과학의 발전과 함께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근대가 때로는 그림자를 만들었고,
직관과 감정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사유 방식 역시 미신적인, 구시대적인 유물로 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논리는 물론 직관과 감정까지도 중요한 영역이며,
특히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르러서는,
AI-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의 관계를 규정하는 과정에, AI가 만들어놓은 사고 체계를 더 이상 인간이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직관의 영역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논리적으로'만' 정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논리에 기반한 정보처리는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정확히 논리가 무엇인지 처리할 줄 모릅니다.
혹은, 너무 심화된, 수능 시험범위 이상을 처리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설명은, 이미 여러분 느끼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파이널 커리의 OT강의로 진행되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 꼭 영상 신청하여 이해 바랍니다.

Q2. 다음 글의 주제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싸움수준 ㄹㅇ실화냐? 진짜 세계관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그찐따같던 나루토가 맞나? 진짜 나루토는 전설이다..진짜옛날에 맨날나루토봘는데 왕같은존재인 호카게되서 세계최강 전설적인 영웅이된나루토보면 진짜내가다 감격스럽고 나루토 노래부터 명장면까지 가슴울리는장면들이 뇌리에 스치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리고 극장판 에 카카시앞에 운석날라오는 거대한 걸 사스케가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서 부숴버리곤 개간지나게 나루토가 없다면 마을을 지킬 자는 나밖에 없다 라며 바람처럼 사라진장면은 진짜 나루토처음부터 본사람이면 안울수가없더라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보루토를 최근에 알았는데 미안하다.. 지금20화보는데 진짜 나루토세대나와서 너무 감격스럽고 모두어엿하게 큰거보니 내가 다 뭔가 알수없는 추억이라해야되나 그런감정이 이상하게 얽혀있다.. 시노는 말이많아진거같다 좋은선생이고..그리고 보루토왜욕하냐 귀여운데 나루토를보는것같다 성격도 닮았어 그리고버루토에 나루토사스케 둘이싸워도 이기는 신같은존재 나온다는게 사실임?? 그리고인터닛에 쳐봣는디 이거 ㄹㅇㄹㅇ 진짜팩트냐?? 저적이 보루토에 나오는 신급괴물임?— 나루토사스케 합체한거봐라 진짜 ㅆㅂ 이거보고 개충격먹어가지고 와 소리 저절로 나오더라 ;; 진짜 저건 개오지는데.. 저게 ㄹㅇ이면 진짜 꼭봐야돼 진짜 세계도 파괴시키는거아니야 .. 와 진짜 나루토사스케가 저렇게 되다니 진짜 눈물나려고했다.. 버루토그라서 계속보는중인데 저거 ㄹㅇ이냐..? 하.. ㅆㅂ 사스케 보고싶다.. 진짜언제 이렇게 신급 최강들이 되었을까 옛날생각나고 나 중딩때생각나고 뭔가 슬프기도하고 좋기도하고 감격도하고 여러가지감정이 복잡하네.. 아무튼 나루토는 진짜 애니중최거명작임..

사실 상당히 글의 구성원리를 잘 따르고 있는 글 중 하나입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끌었다..
로 도입을 잘 쳐줬고

아무튼 나루토는 진짜 애니중최거명작임..
아무튼.으로 응집성. 강조성을 가져가며,
단계성으로 주제를 마지막에 배치한.

바꿔 말하면,
세부내용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작가는
결국 나루토는 명작애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그게 전부입니다.

수능도 마찬가지
출제자는
결국 [ ]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그게 전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 글에서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 주제
*영어 빈칸추론 참조.

결국 주제 전달 받으면 정보처리의 대부분이 끝난 것이고, 실제 수능 문제에서도 80~90% 이상은 주제와 관련하여 정답 처리.

근데 세부내용 하나 하나 어그로 끌리면?

세부 내용을 묻는, 소위 1:1 대응, 세부내용 확인과 같은 문항은 고작 10% 정도인데, 전체 내용을 세부내용 확인을 위한 정보처리로만 접근하니,

당연히 시간 부족,
그 과정에서 피로도 누적으로 정확성 부족
최근 수능 지문의 특징인, 때때로 논리 부족으로 인한,
정보처리시 논리적으로 처리 되지 않는 문제등으로
당황, 뇌정지...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된 결과
2019 수능 만점자 148명
2020 6월 만점자 65명
재앙과 같은 수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Q.
출제자가 위의 1~2단락에서 다루고 싶었던 내용,
즉, 정보가치가 가장 높은 내용
즉, 주제는 무엇인가요?

1단락 고전역학 vs 양자역학
2단락 미시세계 vs 거시세계

A. 주제-내용이 그렇다면

Q.
주제-구조는? [ ]
❶ 대조
❷ 비교
❸ 정의
❹ 논쟁
❺ 예시

>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우리는 여기서 쓸데 없는, 가치 없거나, 가치가 매우 낮아, 글쓴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집중합니다.

예를들면

>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중략) 20세기에 등장한

와 같은 정보에 집중하여,
안 그래도 본인의 정보처리 '용량'이 부족한데,
쓸데 없는 데이터 받다가
스마트폰 데이터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묻습니다.
정보가치가 높은 정보와
정보가치가 낮은 정보의 차이가 무엇이냐구요.

배워야죠.
어떻게 연애 강의 한 번 듣고 차은우랑 연애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보는 내용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로, 앞 뒤 내용이 역접임을 알려주는 연결사
출제자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납니다.
즉, 역접은, 어휘의 반의관계에서 보이듯[6]

6) 사전. 반의관계 : 단어의 뜻이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 한 쌍의 말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총각'과 '처녀', '위'와 '아래', '작다'와 '크다', '오다'와 '가다' 따위이다.

고전역학 vs 양자역학의 대립과
하지만 앞 뒤에 위치한 내용 대립
보이시나요?

1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고전역학	양자역학
배타적 상태의 공존	불가능	가능

딱, 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출제자 의도 파악 100% 완성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꼭
정보 처리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묻는데,
80분 안에 가능 하시던가요?

시험에서 세부적인 정보 다 묻지 않느냐?
장담하는데 묻는 문제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쓸데 없는 정보가 왜 있냐?

아니 그러면... 님들은... 연애 할 때, 썸 탈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사귀자!" 합니까?

"나 공짜 표가 생겼는데, 우리 이번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갈까?"
지금 공짜표가 생긴게 중요하고, 영화 보는게 중요한건가요?

"오빠. 죄송해요. 이번 일요일에 일이 있어서요."
Q. 진짜 일요일에 일이 있는 걸까요?

"그래? 그럼 언제 시간 괜찮아? 나는 항상 시간 맞출 수 있어!"
아니. 그냥 사귀자고 하면 되잖아요? 쓸데 없이 뭔 영화? 뭔 팝콘?? 진짜 영화 보고 싶은게 목적임???

그럼 영화 혼자 봐요.

"오빠. 죄송해요. 요즘 시험 준비 때문에..."
Q. 진짜 시험이 있을까?

"우리 중간고사 끝났잖아? 무슨 시험?"
넌씨눈...
보여요???

이 긴 대화는 그냥 깔끔하게
남 : 야 사귀자
여 : 꺼져
결국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하고 싶은 말 딱! 하면 되지
왜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고
그 말 하나 하나 의미 부여하고 해석하고 고민하고...
지금 모쏠 티내는거 아니죠?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

이어서 2단락 갑니다.

개념. 글의 구성원리 '단계성' 적용

으로, 1단락, 특히 1단락 후반부 ~ 2단락 초반부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주제세팅을 합니다.

윗 글에서,
초기 운동상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반복/강조를 하거나,
구조적으로 대응을 만들며 주목을 시켰겠죠.

"오빠. 죄송해요. 이번 일요일에 일이 있어서요."
Q. 진짜 일요일에 있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A. 진짜 일요일에 일이 있네. 그런데 썸각이라서 토요일 보자함. 알겠음??
2단락 이어갑니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마찬가지로
5cm이면 어떻고
500km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1단락에서 세팅한

1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고전역학	양자역학
배타적 상태의 공존	불가능	가능

이 주제 흐름 잡아야죠.
Q.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주제는?

이거 백날 줄 글 처리 해 봐야 꼬입니다.
구조 잡으면서 갑니다. 그러면 끝.

2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거시세계		미시세계	
배타적 상태의 공존 = 좌우 도는 상태 공존	공존 no		공존 yes	
	관찰 전	관찰 후	관찰 전	관찰 후
예시 적용. 이해	좌우 이미 결정 공존안함	확인	좌우 미정 공존	결정

잠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면. 전적으로 배경지식.

그러면 또 누군가는 배경지식 없어도 풀 수 있어야죠!
라고 우기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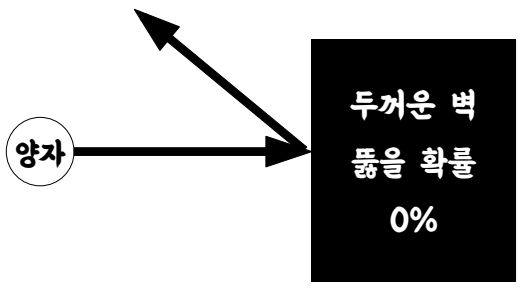
물론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고,
아니면 원래 독서 능력이 어릴 때부터 뛰어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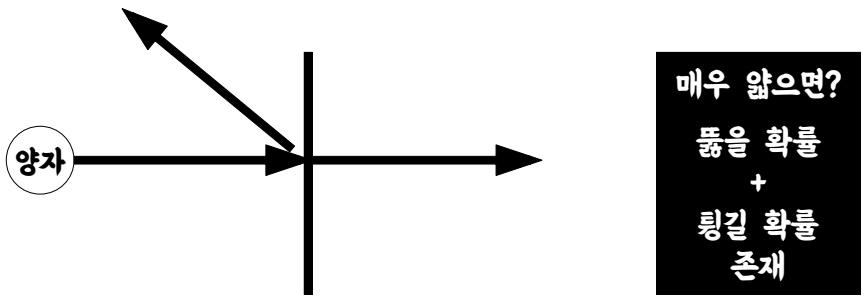
수업 듣고는?
그렇게 유도가 된 것이지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 증거는 수도 없이 말했듯이
만점자 65명 148명.

참고.

2019 STM 지문
'양자 터널링 효과'
: 거시세계(우리가 5감으로 감각하는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나, 미시세계에서는 일어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현상. (앞으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논리적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논리적 설명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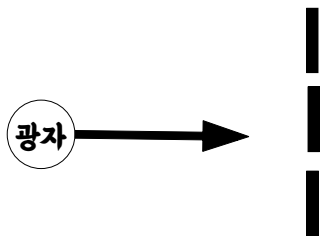
이것이 양자 터널링 효과로,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7나노, 5나노 하는 공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전자는 벽을 뚫으면 안 되는데, 미시세계, 초정밀 공정으로 갈수록, 때때로 전자가 벽을 뚫거나, 튕기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윗 글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양자 얽힘' 현상인데
이는 현재 구글, 삼성이 개발했고, 상용화를 앞둔 '양자컴퓨터'원리입니다. (그러니 이 글 3단락에 연결되어 있고, 당연히 ebs 연계입니다)

양자 얽힘은 우선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원래는 광자, 즉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성격을 알기 위해 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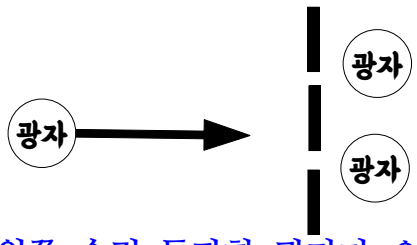
이렇게 벽에 2개의 구멍을 두면, 당연히 입자는
위
or
아래 둘 중 하나로 나가야겠지만?
그래서
위쪽 슬릿 통과 확률 : 1/2 = 50%
아래 슬릿 통과 확률 : 1/2 = 50%
이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위쪽 슬릿 통과 확률 : 1 = 100%
아래 슬릿 통과 확률 : 1 = 100%
입니다.

즉, 둘 다 동시에 통과한다는 것이죠.
즉, 위 or 아래라는 거시에서는
배타적인 상태가
미시에서는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그래서 여전히 과학자들은 “내 스스로도 논리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지만,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양자 얽힘인데...



위쪽 슬릿 통과한 광자가 오른쪽 스핀이면?
100% 확률로
아래쪽 슬릿 통과한 광자는 왼쪽 스핀입니다.

즉,
한 쪽 슬릿을 통과한 광자의 스핀은
다른 쪽 슬릿을 통과한 광자의 스핀을 관측할 때
결정이 됩니다.

위 문장을 이해 될 때 까지 반복해 읽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아래 쪽 슬릿을 통과한 광자는 현재 오른쪽/왼쪽 스핀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배타적 상태의 공존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 슬릿을 통과한 광자의 스핀을 관측하는 순간 오른쪽/왼쪽이 결정됩니다.
즉,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관측 순간 결정됩니다.

거시세계라면
위 쪽 슬릿을 지난 농구공이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미 돌고 있겠죠.
그러니, 다른 쪽 슬릿 관측 결과에 상관 없이 이미 돌고 있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하나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1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고전역학	양자역학
배타적 상태의 공존	불가능 크기 상관 없음 →	가능 크기 상관 있음

2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거시세계		미시세계	
배타적 상태의 공존 = 좌우 도는 상태 공존	공존 no		공존 yes	
	관찰 전	관찰 후	관찰 전	관찰 후
예시 적용. 이해	좌우 이미 결정 공존안함	확인	좌우 미정 공존	결정

이렇게 설명해야하는 정보를

>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
>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래 놓으니... 만점자가 그 숫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배경지식 없으면 어떡하라구요? 저는 없는데요?
...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봅시다. 다음 페이지!

이미 느끼시겠지만, 시중 해설 비롯 대부분은 제대로 된 해설 아닙니다. 정확히 봅니다.

>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구조는? 논증.

논증구조는? 주장+근거

아인슈타인 주장 = 반박 : 양자역학 비판

아인슈타인 주장+근거 = 반박+근거 :

달을 예로 들었고,

1~2단락은 양자 vs 고전역학 논쟁이니

당연히 고전역학을 근거로 비판했겠죠.

그렇다면 1~2단락 전체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1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고전역학	양자역학
배타적 상태의 공존	불가능	가능

2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거시세계		미시세계	
배타적 상태의 공존 = 좌우 도는 상태 공존	공존 no		공존 yes	
	관찰 전	관찰 후	관찰 전	관찰 후
예시 적용. 이해	좌우 이미 결정 공존안함	확인	좌우 미정 공존	결정

보통은

고전역학 = 배타적 상태 공존 없고 = 거시세계 역시 공존 없으니 => 고전역학 = 거시세계

양자역학 = 배타적 상태 공존 있고 = 미시세계 역시 공존 있으니 => 양자역학 = 미시세계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방금 처리한 정보 100% 맞나요?

논리적으로 완벽히 100% 맞나요?

정확히 답변 바라며, 그 이유도 씁니다.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 주장의 근거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1번 선지가 정답/오답인 근거 :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2번 선지가 정답/오답인 근거 :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3번 선지가 정답/오답인 근거 :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4번 선지가 정답/오답인 근거 :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5번 선지가 정답/오답인 근거 :

또 적당히 답 찾아 놓고 맞다고 하는데... 정확히 정리 끝나면 넘어갑니다!

1단락 2단락
정보가치 높은 주제, 구조를 잡아드린 아래 표
이제는 이해 되시죠?
다시 정확히 아래의 표를 먼저 이해하시고

1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고전역학	양자역학
배타적 상태의 공존	불가능	가능

2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거시세계		미시세계	
배타적 상태의 공존 = 좌우 도는 상태 공존	공존 no		공존 yes	
	관찰 전	관찰 후	관찰 전	관찰 후
예시 적용. 이해	좌우 이미 결정 공존안함	확인	좌우 미정 공존	결정

이해 되셨으면 위의 내용 적용하며 아래 지문 봅니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아까 혼자서 문제 풀 때 보다 훨씬 수월해졌을겁니다.

왜냐구요?

이게 바로, 정보 구조와 정보 내용 처리를
평가원이 의도한 대로 적용했을 때의 힘이고
그것을 자연스레 제 해설을 통해 수업 흐름을 통해
느끼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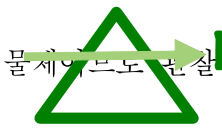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1~2단락 전체 내용과 구조를 한 번에 가장 중요하게
물을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합니다.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C : cause 원인 근거 이유
E : effect 결과
즉, 있으므로. 인과구조입니다.
C : 관찰 ➜ E : 존재
관찰로서, 존재가 결정.
Q. 미시 or 거시 관점? [ ]

네. 관찰로서, 존재가 결정.
미시 = 양자 역학 관점. 틀린 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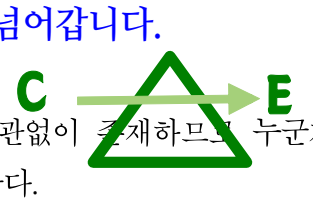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러면 2번선지 맞는거 아닌가요?
달은 거시세계. 맞고.
거시니까 관찰과 상관 없이 이미 결정. 즉, 존재...
2번도 맞는데요?

뭐가 문제? 정확히 생각합니다.

나중 설명드리고, 일단 넘어갑니다.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C : 관찰 상관 없이 ➜ E : 존재
관찰 상관 없이, 존재가 결정.
Q. 미시 or 거시 관점? [ ]

네. 관찰 상관 없이 이미 존재.
거시=고전역학
정답?

으잉?
그럼 2번도 3번도 정답?

뭐가 문제? 정확히 생각합니다.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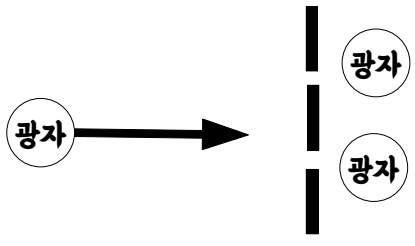
C : 관찰 없이 ➜ E : 존재 말할 수 없다
즉, 바꿔쓰면.
C : 관찰 전 ➜ E : 미정
Q. 미시 or 거시 관점? ☐

네.
관찰 전에는 미정이니
미시 = 양자역학
그럼 얘도 1번 선지처럼 out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가능성이 반반???
Q. 미시 or 거시 관점? ☐

네.
미시 = 양자 역학
있다 vs 없다
상호배타적 상태 공존
가능성 1/2 1/2
그럼 얘도 1번 선지처럼 out



그러면 남는건 2번 3번 선지.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죠?
우리 평소에 논리적 근거 찾잖아요.
본문을 보든 뭔 짓을 하든 찾아보세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운 '논리'가 제대로 된
'수능 국어 논리'였다면 통하지만
그냥 뇌피셜
또는 철학-논리학 혹은 언어학-논리학이니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리고, 풀이과정, 답을 고른 이유가 틀렸는데,
맞았다고 좋아하면 되나요?
통렬한 자기 비판과 성찰이 있어야 하나요?
백분위 99, 100, 1~2등급 최상위권이 목표라면, 필요한 태도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에대한 충분한 고민이 끝나면, 뒷 페이지 갑니다.

다시 주제-구조를 봅니다.

1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고전역학	양자역학
배타적 상태의 공존	불가능	가능

2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거시세계		미시세계	
배타적 상태의 공존 = 좌우 도는 상태 공존	공존 no		공존 yes	
	관찰 전	관찰 후	관찰 전	관찰 후
예시 적용. 이해	좌우 이미 결정 공존안함	확인	좌우 미정 공존	결정

그리고 지문.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선지...뭔가 보이셨을까요?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A이므로 B이다
따라서,
~A이면 [ ]이다
위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물론, 명제의
역, 이(부정), 대우 관계에서
원래 명제가 참 이라면,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입니다.

하지만, 국어 논리는 수학적 명제에서 다루는 논리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까 남녀 대화에서 보이듯이, 우리는 논리적으로만, 정보처리 하지 않습니다.

다시.
A이므로 B이다
따라서,
~A이면 ~B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어 논리'에서 용인되는 명제 형태입니다. (원래 명제가 옳다고, '이' 명제가 옳지는 당연히 않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즉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의사소통하고, 따라서, 평가원은 이러한 정보처리를 요구합니다.)

예를들면,

군인이라서 자유를 억압받는다. 따라서,
군인이 아니라면 자유를 [ ]

발톱이 날카로운 동물은 육식을 한다. 따라서,
발톱이 날카롭지 않은 동물은 [ ]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 ]

즉, 논리적으로 100% 맞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의사소통 행위에서는 통용되는 '국어 논리'입니다.

결국 2번 선지는
거시 세계만을 다루는 관점이 아니라
미시 세계 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 문장을 말한 순간 오른쪽 주황색 세계를 말한 것이고, 이는 거시세계가 아닌 세계에 대한 함축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흰색 좌측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②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은 미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2번 선지도 결국 미시=양자역학 관점

이제 정리하면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관찰로서, 존재 결정 = 미시 관점 = 양자역학 관점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미시세계 함축. 양자역학 관점 가능.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관찰로서, 존재 여부 말할 수 있다
= 미시 관점 = 양자역학 관점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가능성 반반. 즉 상호 배타적 상태 공존. 미시 = 양자역학 관점.

정답인 3번 선지.

비판 대상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인슈타인 주장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도 달은 존재한다

=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관찰 이전에도 이미 결정, 존재 = 거시 = 고전역학적 관점

정답 3번 선지.

하지만... 지금까지의 설명이 절대 좋은 설명이 아닌 이유는

1. 너무 어렵고
2. 현실적으로 수능에서 충분히 써먹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 평가원의 정보처리 공식에 따라
2. 체화 적용하여, 제발 탈출하세요.

이제 현실적인 해법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만 휴식 하고 옵니다.

주제 – 내용과 구조를 잡으라 말씀드렸습니다.

1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고전역학	양자역학
배타적 상태의 공존	불가능	가능

2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거시세계		미시세계	
배타적 상태의 공존 = 좌우 도는 상태 공존	공존 no		공존 yes	
	관찰 전	관찰 후	관찰 전	관찰 후
예시 적용. 이해	좌우 이미 결정 공존안함	확인	좌우 미정 공존	결정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어떻게 하면 위와 같은 표처럼 깔끔한
주제 – 내용과 구조 정보 처리가 가능할까?
기억합니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처리 능력 = 평가원이 생각하는 국어 능력

독서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주제 위치

: 첫단락 + 첫단락 끝부분 + 두 번째 단락 첫부분 집중

⇒ 전체 연결되는 주제 흐름 잡기

2. 구조 – 문장 S O C Ad V 처리 + 반복, 강조 체크

3. 구조 – 문단.글,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방식+표지(지시/연결),

4. 최근 지문의 출제양상 : 정보군집 단독문항 출제, 상호텍스트성 – 한 지문에 여러 주제 복합, 원리 지문 – 이해 적용 요구, 필요시 표, 그림, 그래프 등으로 그려 처리 요구, 수학 공식 이해 적용 요구, 인과/원리는 무조건 정보가치 높음

독서가 막히는P(problem)이유C(cause)는?

1. 내 독해력의 문제가 아님. 평가원 지문 문제임!

2. 정보압축, 생략, 변형, 기출/ebs연계 과정에서 왜곡⇨ 결국 지문의 논리적 모순, 정보량은 폭발.

***4차 산업혁명 특징에 맞는 정보처리 요구**

***제발 좀 1994학년도 시절의 정보처리 방법**

언어영역 요구 능력 vs 현 수능 국어영역 요구 능력

혼동 좀 그만. 이젠 논리'만' 묻는 시험 아님. 일치, 1:1대응 죄다 '라떼는'유형.

S(solution)독서가 막히면? 이렇게!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수능 독서 정보처리 안 되는 문제와 원인

1. 80분 안에 절대 처리 불가할 정도로 정보량 폭발

2. 그런데 정보 처리에 충분한 내용은 또 불충분

3. 완결성 떨어지는 지문

배경은?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정보 성격 그대로 출제+처리

Big Data ⇨ Data Structure 분석 ⇨ Crawling

네이버에 '2020-9월 소유와 점유 지문' 검색해 보면.

시스타 소유 나옴.

법정스님 무'소유', 구운몽 양'소유'

뭔 상관임? 님 그거 읽음? 그냥 넘기고 선택/집중.

수능 지문도 똑같음. 절대로 모든 지문 100% 처리 불가한 정보량 낸 이유 좀 생각. 언제까지 언어영역 시절 문제 접근법을 쓸거임?

해법은?

1. 주제, 즉,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

2. 구조, 처리

3.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1년 6개월만 지나도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정보량이 새로 생기는 시대임. 절대로 모든 정보 완벽 처리 불가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대상은? 당연히 정보가치 높은 정보. 동시에 그 정보간의 관계, 즉 구조 처리가 되어야 유의미한 정보처리 됨.

꼭 기억합니다. 아래의 4가지 공식.

1. 주제 위치

: 첫단락 + 첫단락 끝부분 + 두 번째 단락 첫부분 집중

⇒ 전체 연결되는 주제 흐름 잡기

2. 구조 – 문장 S O C Ad V 처리 + 반복, 강조 체크

3. 구조 – 문단.글,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방식+표지(지시/연결),

4. 최근 지문의 출제양상

이제 다시 적용해보겠습니다.
1단락이니 주제 세팅 기억합니다.

>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인과로서, 고전역학 관점에 대해 다루는데,
뒷 내용이 세부 내용이기도 하고, 구조도 안 잡히니, 글쓴 의도 파악도 안 되고, 아직 정보가치 판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글쓴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우선 반복 – 대응 – 강조 되며,
특히
하지만
역접 연결사 쓰이며 앞뒤 비교 대조 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1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고전역학	양자역학
배타적 상태의 공존	불가능	가능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해지면 너무 쉽게 글 이해가 됩니다.
쓸데 없는 정보에서 쓰는 역량이 절약되니,
글쓴 의도에 맞는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됩니다.

이어지는 2단락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대조
동시에, 상호배타적 상태의 공존이라는 주제 흐름을 연결 짓습니다.
거시세계 물체, 팽이의 예시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아래의 이와달리. 역접 대조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계속 반복 되는 말 + 대립 구조 잡으면?

2단락 정보처리 흐름	거시세계		미시세계	
배타적 상태의 공존 = 좌우 도는 상태 공존	5cm 팽이		전자 크기 팽이	
	관찰 전	관찰 후	관찰 전	관찰 후
예시 적용. 이해	좌우 이미 결정 공존안함	확인	좌우 미정 공존	결정

줄글과 표를 와리가리 하며 처리해보세요.
네. 줄글이 아닌 표가 훨씬 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정보처리 능력.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달리. 역접 대조. 하며 다시 또 글의 주제인
거시 vs 미시로
고전-양자 역학 정보를 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중요한 정보 처리
상호배타적 상태의 공존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예시로,
고전 vs 양자 역학 논쟁 구조를 잡으며
27번 문항으로 1~2단락 정리

1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고전역학	양자역학
배타적 상태의 공존	불가능	가능

2단락 주제 내용 + 구조	거시세계		미시세계	
	공존 no		공존 yes	
배타적 상태의 공존 = 좌우 도는 상태 공존	관찰 전	관찰 후	관찰 전	관찰 후
예시 적용. 이해	좌우 이미 결정 공존안함	확인	좌우 미정 공존	결정

아인슈타인의 반박 : 양자역학 비판
아인슈타인의 반박 근거 : 고전역학 (거시세계만)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관찰로 존재 : 미시 = 양자역학 관점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거시세계의 경우 B = 미시세계의 경우 ~B
국어 논리로. 미시세계 정보 함축 처리 가능.
즉, 거시세계만 다루는 관점으로 볼 수 없음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관찰로 존재 : 미시 = 양자역학 관점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가능성 반반? 미정 = 미시 = 양자역학 관점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 당신이 달을 관찰 하기 전에도 달은 존재한다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관찰 이전에 이미 결정 = 거시 = 고전역학 관점

여기서
굳이 2번 선지를 양자역학 관점으로,
양자역학이 거시 + 미시 둘 다 포함해야하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31번 문제 연결됩니다.
차근 차근 따라오세요.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ebs 연계 28번 엮어서 보기로 ebs 연계 보여주려고 들어간 단락이라, 정말 처리할 내용이 없어요.

다만, 1~2단락 주제, 상호배타적 상태 => 양자컴퓨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
다시 이러한 측면은 => 논리학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으로 4~6단락 연결 단락 역할은 합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 소력 있는 떻떻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3번째 정보군집. 4단락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고전논리 vs 프리스트
고전논리도 이미 우리가 아는 논리로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2, 고1 때 배운 집합과 명제 명제의 정의이기도 하죠.
참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이렇게 누구나 아는 배경지식 연결. 필수.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결국, 프리스트 = 비고전논리 vs 고전논리 대립을 설명하기 위해.
참인 동시에 거짓 ➜ 거짓말쟁이 문장 ➜ 자기 지시적 문장 의 흐름을 잡고 설명 이어갑니다.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한 정의(구조)
예를들어
당연히 앞 내용 정보가치가 높다는 판단 바로 됩니다.
따라서 자기지시적 문장을 이해해야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해
참인 동시에 거짓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글에서 주제인
상호배타적 상태의 공존이니
시작은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한 처리!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예시, 그리고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한 정의.
이는(지시어)로서 앞 내용을 정리 집약 하므로
정보가치 높습니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의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멘탈 한 번 터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위 진술 자체가 논리적으로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처리하면 할수록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라고.
정보가치 높은 것에 집중하라고.

그러면?
시작은 자기지시적 문장.
바로 답이 또 나옵니다.

29.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자기 지시적 문장은 '이 문장' 이라는 표현 필요.
정답 아님.

②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자기 지시적 문장은 '이 문장' 이라는 표현 필요.
자기 지시적 문장 맞음.
따라서 참.
따라서 거짓 아님.
정답. 끝

간단히 여기서 클리어.[7]

7) 질문이 있어 나머지 정보 처리합니다. 절대 좋은 해설 아닙니다

③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자기 지시적 문장은 '이 문장' 이라는 표현 필요.
자기 지시적 문장 맞음.

④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고전 논리 : 참 아니면 거짓 둘 중 하나만 성립. 상호배타적 상태의 공존 안 됨. 자기 지시적이면서,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면 진리치 부여 가능하겠지!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그런데로 뒷 내용 정보가치 높이고

예를들어로, 정보가치 높입니다.

따라서,
주제는 전건 긍정 규칙입니다.
고전논리 vs 비고전논리 대조에서,
전건 긍정 규칙 적용으로 그 대조적 내용 처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논리 정보 처리는
구조화
도식화
표 처리
핵심입니다.
줄글로는 처리 매우 어렵습니다.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⑤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ㄴㄴ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있을 수 있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님.

하지만, 이런 논리적 완벽한 판단을 근거 찾아 실전에서 한다??? 불가능하다니까 좀...

정리하면

6단락 주제 내용+구조	고전논리			비고전논리		
전건긍정규칙 적용	성립			불성립		
예시	조건문	전건	후건	조건문	전건	후건
	P→Q	P	Q	P→Q	P	Q
	참	참	참	참 참+거짓	참 참+거짓	거짓

즉,
고전논리에서 전건긍정규칙은
조건문과 전건 둘다 참 =〉 후건도 참
성립

반면
비고전논리에서 전건긍정규칙은
조건문과 전건 둘다 참 또는 참 동시 거짓
=〉근데 후건은 거짓
불성립

바로 정답부터 설명.

30. 윗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고전 논리는
전건 긍정 규칙 정용
조건문 + P 참 =〉 Q 후건 참. 따라서 거짓 불가.
정답! 끝

나머지 봅니다.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비고전논리 LP는 전건긍정규칙 비적용
따라서
조건문 + P 참 동시 거짓 => Q 거짓
지문 예시 발췌독...으로 푼다구요? 시간은? 피로도는?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로 이해하면,

6단락 주제 내용+구조	고전논리			비고전논리		
전건긍정규칙 적용	성립			불성립		
	조건문	전건	후건	조건문	전건	후건
예시	P→Q = P = Q			P→Q = P ≠ Q		

결국, 전건긍정규칙 성립이란
조건문과 전건의 참 거짓 진리치가
후건과 같다는 것이고

불성립이란
조건문과 전건의 참 거짓 참 동시 거짓 진리치가
후건과 다르다는 것이니

당연히 5번 선지 말고는 말이 안 되는데
모든 선지 하나하나 뭐가 맞고 틀리고 답인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진다?
시간 쓰다가 시험 끝납니다...

바로 주제 잡고 선지 털면
빠르게 5번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미분법 하나 배웠다고 수학 30번 문제가 바로 풀려야 하는 것 아니듯,
국어도 차근 차근 배워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국어 특성상, 사고하는 습관의 변화만 생기면
바로 변하기 때문에 성적 급등도 있지만,
동시에 그 습관의 변화가 어려워서 제자리 걸음
그 습관의 변화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점수 기복이 생깁니다.

수업, 자료, 관리도구. 모두 철저하게 잘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지문은 우선 기반이 될 수 있는 독서 지문들을 정리한 뒤에, 올해 6평과 최근 기출들을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0학년도 9월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에서 '천(天)'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自然天)'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특히 상제(上帝)와 결부됨으로써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천(上帝天)' 개념이 자리 잡았다.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天命)'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인 천명은 제사 등을 통해 통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 의식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다. 천명은 계속 수용되었지만, 그것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은 수정되었고, 그 기저에는 도덕적 의미로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자리하였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여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천명 의식은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② 천은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③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④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
⑤ 내면화된 천은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다.

14.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1점]

< 보 기 >

특정한 사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 개념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 개념의 의미 변천, ㉰ 해당 개념에 대한 주요 사상가의 견해, 그리고 ㉱ 현대적 적용 양상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념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사상사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도 고찰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천'에서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② '상제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③ '의리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잘 발휘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④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⑤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16. 위 글의 천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함이 없다.
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ㄷ.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스르고 천을 따르는 자는 없고, 사람을 따르고 천을 거스르는 자도 없다.
ㄹ.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아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 가도록 맡겨 둔다.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①	ㄱ	ㄴ,ㄹ	ㄷ
②	ㄴ	ㄱ	ㄷ,ㄹ
③	ㄹ	ㄴ	ㄱ,ㄷ
④	ㄱ,ㄹ	ㄴ	ㄷ
⑤	ㄱ,ㄹ	ㄷ	ㄴ

2009학년도 수능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0.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4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②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42.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

(나)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2008학년도 수능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2008학년도 9월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 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_1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1을 획득하고, 특정 시점 t_2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2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_N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_1부터 d_N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t_1	d_1
t_2	d_1+d_2
⋮	⋮
t_N	$d_1+d_2+\cdots+d_N$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로 유효하려면 t_1에서 t_N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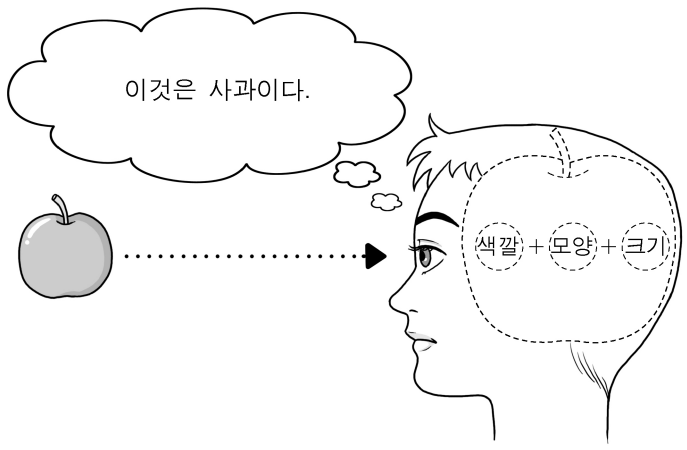
36.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감각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
②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의 한계
③ 인간의 감각 기관의 발달 과정과 그 한계
④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⑤ 인간의 의식 발달의 조건과 생물학적 한계

37. '철수'의 사고 과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것의 속성인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은 뒤, 이 세 개의 관념을 종합하여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판단한다.



①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②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③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④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38. 위 글의 주제를 함축한 말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강의실이 어제의 이 강의실 맞나요?
② 오늘은 도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③ 여러분은 평소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④ 우리는 곧잘 우리 자신이 한 약속조차 잊곤 합니다.
⑤ 오늘은 덧셈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9. ㉠의 어간 '불구하-'는 일부 어미와만 결합한다. 이와 같은 용언이 아닌 것은?

① 송아지가 애처롭게 울었다.
② 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
③ 친구의 집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
④ 나는 서슴지 않고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잘 알고 있다.

2007학년도 수능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건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건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 이루어진 것이다.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2 + 3 = 5'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2 + 3 = 5'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앎[知]'이란 어떤 능력이나 정보의 소유를 의미한다.
② 절차적 지식은 다른 지식 유형의 기반이 된다.
③ 표상적 지식은 특정한 수행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④ 경험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의 일종이다.
⑤ 감각 경험의 사례를 근거로 선험적 지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34.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2 × 4 = 8'은 모른단다.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35.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36.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천명(闡明)되기도
② ⓑ : 습득(習得)한
③ ⓒ : 의거(依據)하여
④ ⓓ : 형성(形成)된
⑤ ⓔ : 별개(別個)의

독서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주제 위치

: 첫 단락 + 첫단락 끝부분 + 두 번째 단락 첫부분 집중 ⇒ 전체 연결되는 주제 흐름 잡기

2. 구조 : 문장 S O C Ad V 처리 + 반복, 강조 체크

3. 구조 : 문단.글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방식

+표지(지시/연결),

4. 최근 지문의 출제양상 : 정보군집 단독문항 출제, 상호텍스트성 – 한 지문에 여러 주제 복합, 원리 지문 – 이해 적용 요구, 필요시 표, 그림, 그래프 등으로 그려 처리 요구, 수학 공식 이해 적용 요구, 인과/원리는 무조건 정보가치 높음

독서가 막히는P(problem)이유C(cause)는?

1. 내 독해력의 문제가 아님. 평가원 지문 문제임!

2. 정보압축, 생략, 변형, 기출/ebs연계 과정에서 왜곡⇨ 결국 지문의 논리적 모순, 정보량은 폭발.

*4차 산업혁명 특징에 맞는 정보처리 요구

*제발 좀 1994학년도 시절의 정보처리 방법

언어영역 요구 능력 vs 현 수능 국어영역 요구 능력

혼동 좀 그만. 이젠 논리'만' 묻는 시험 아님. 일치, 1:1대응 죄다 '라떼는'유형.

그 결과 시간 부족 + 20-6월 만점자 65명

S(solution)독서가 막히면? 이렇게!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수능 독서 정보처리 안 되는 문제와 원인

1. 80분안에 절대 처리 불가할 정도로 정보량 폭발
2. 그런데 정보 처리에 충분한 내용은 또 불충분
3. 완결성 떨어지는 지문

배경은?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정보 성격 그대로 출제+처리

Big Data ⇨ Data Structure 분석 ⇨ Crawling

네이버에 '2020-9월 소유와 점유 지문' 검색해 보면.

시스타 소유 나옴.

법정스님 무'소유', 구운몽 양'소유'

뭣 상관임? 님 그거 읽음? 그냥 넘기고 선택/집중.

수능 지문도 똑같음. 절대로 모든 지문 100% 처리 불가한 정보량 낸 이유 좀 생각. 언제까지 언어영역 시절 문제 접근법을 쓸거임?

해법은?

1. 주제, 즉,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
2. 구조, 처리
3.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1년 6개월만 지나도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정보량이 새로 생기는 시대임. 절대로 모든 정보 완벽 처리 불가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대상은? 당연히 정보가치 높은 정보. 동시에 그 정보간의 관계, 즉 구조 처리가 되어야 유의미한 정보 처리 됨.

배운 내용 바탕 위의 지문을 접근하면,

결국

1. 글쓴 사람/출제자가 전달하려 하는 의도

즉, 주제 찾는게 핵심이고

그 주제는 구조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단락, 특히 1단락 끝-2단락 첫 부분에 이어지는 흐름에서 주제 세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제는 또한 1단락 도입-반복 강조 되며 주제 세팅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딱! 다음과 같은 구조와 내용의 정보처리가 글 쓴 사람의 의도. 끝.입니다. 지문 내용과 별개로.

아래의 구조와 내용 그대로 정독,
37페이지 '2010학년도 9월 13~17' '천'지문 아래의 구조와 내용만 가지고 이해해봅니다. (지문 상관 없이)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도입 ⇨ 주제 : 천의 다양한 의미	정보가치 높은 즉, 주제 집중 주제를 알려주는 것은 구조.
2 C 농경 ⇨ E 자연천 정의 : 자연현상, 작용	주제와 구조에 집중. 결국 하고 싶은 말은?
3 C/P 도덕 자각 없음. 원인 의지 모름. E 천은 신성함. ⇨ E 상제천 = 하느님 C 정치 ⇨ E 천명	천의 다양한 의미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4 P : 상제천 ⇨ 절대 권력 S : 도덕 ⇨ 의리천. 민주적	그리고 발전 확장! 끝! 이게 안 된다고??
5 천 개념의 확장 발전	

동양에서 '천(天)'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결국 도입부 천.
그 상술로 이어지다
그래서
연결사로 집약하며,
결국 3번이나 반복된 천의 의미가 글의 주제겠구나!
1단락 세팅! 확인!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 짙었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自然天)'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C

E

1단락.
천의 다양한 의미

2단락은?
그 의미중 자연천 :
농경 =〉 자연천
정의 : 표면 모습과 작용, 자연현상과 작용
끝!

물론, 나머지 정보는 처리 안해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결국 글 쓴 사람의 의도
그리고 영어에서 봤었던 paraphrase 바꿔쓰기
즉 내 머릿속 어떤 지식, 어떤 개념 체계와 바꿔쓰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처리를 못하는 것이 바로 독서 정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제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구조는?

에 집중해서 처리바랍니다!

이러한 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특히 상제(上帝)와 결부됨으로써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천(上帝天)' 개념이 자리 잡았다.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天命)'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인 천명은 제사 등을 통해 통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 의식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다. 천명은 계속 수용되었지만, 그것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은 수정되었고, 그 기저에는 도덕적 의미로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자리하였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여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1단락.
천의 다양한 의미

2단락은?
그 의미 중 자연천 :
농경 => 자연천
정의 : 표면 모습과 작용, 자연현상과 작용

3단락은?
그 의미 중 상제천 = 하느님 = 신 => 권력 => 천명

이어지는 흐름은!
도덕 의리천!

구조 잡으면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보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처리가 쉽진 않아요
결국 천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은 의미들이 나열...

그런데?
결국 단계성 적용해보면...?
결론 단락 특히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역시 밑줄 출제구나...

꼭 1:1 대응이니, 세부내용 파악이니...
그러다 시간, 정확도, 피로도...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주제 + 구조 문항!

① 천명 의식은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C : 상제천 => 정치 => E : 천명
C : 농경생활 => E : 자연천
당연히 주제+구조. 틀림!

② 천은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천. 표본. 도덕... 주제 키워드는 맞는데...
초월적 세계?
좁히고 발췌독... 아마 밑줄이나 표시에 있을 걸?

③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자연천 정의 : 자연현상과 작용 틀림!
역시 주제 + 구조. 정보가치 높은 내용 집중.

④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
자연현상? 자연천
도덕적 가치의 근원? 상제천 ⇨ 정치 ⇨ 천명 ⇨ 도덕 ⇨ 의리천...
아 전체 관통하는 주제 구조 다 말한건데?!
역시 정답!
불안하면 좁히고 발췌독

⑤ 내면화된 천은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다.
???
이건 정치 ⇨ 상제천인데?
내면화된 천? 관련 없음..

14.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1점]

< 보 기 >

특정한 사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 개념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 개념의 의미 변천, ㉰ 해당 개념에 대한 주요 사상가의 견해, 그리고 ㉱ 현대적 적용 양상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념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사상사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도 고찰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역시! 주제 구조 집중.
2번 끝.
천의 다양한 의미
자연천 ⇨ 상제천 ⇨ 의리천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항은 숨겨진 주제.
머릿 속 어떤 개념으로 바꿔내지 못하면 처리가 안 됨.
이 부분은 기출/ebs 연결 배경지식이 필요.

인류의 사상사

신 ⇨ 인간 ⇨ 과학
신학 ⇨ 철학 ⇨ 자연과학
으로 발전.
따라서...

신 중심 = 인간은 신의 결정에 따름 타율적 : 상제천
하지만 점점 발전... 결국?
⇨ 인간 중심 : 마지막 단락은 그 내용이구나!

① '자연천'에서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시작단계데? 인간 인식 자체가 없음. 정답 끝!

② '상제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맞아!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
인간은 타율적이지!

③ '의리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잘 발휘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아마...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는 단계니까...
그리고 의리천 = 도덕이니까...
아마도? 불안하면 좁히고 발췌독

④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⑤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둘 다 맞네! 전체 흐름!

결국 주제 흐름인 천 개념
자연천 : 자연의 현상 작용
상제천 : 하느님. 전지 전능. 신
천명⇨의리천 : 도덕

16. 위 글의 천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ㄱ.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함이 없다.
자연천 : 자연의 현상 작용

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제천 : 하느님. 전지 전능. 신

ㄷ.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스르고 천을 따르는 자는 없고, 사람을 따르고 천을 거스르는 자도 없다.
천명-의리천 : 도덕

ㄹ.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상제천 : 하느님. 전지 전능. 신

아니라는 거지?

천은 텅 비고 아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 가도록 맡겨 둔다.

자연천 : 자연의 현상 작용

정답 4번!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①	ㄱ	ㄴ,ㄹ	ㄷ
②	ㄴ	ㄱ	ㄷ,ㄹ
③	ㄹ	ㄴ	ㄱ,ㄷ
④	ㄱ,ㄹ	ㄴ	ㄷ
⑤	ㄱ,ㄹ	ㄷ	ㄴ

FAQ. 다시 한 번 '논리'에 대하여. 다음 문장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시고, 특히, '국어', '일상생활', '논리'적 차이에 주목 바랍니다.

Q1. A법을 지키지 않을 시, B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2. A법을 지키지 않을 시, B벌금형이 부과되어집니다.

Q3. A법을 지키지 않을 시, B벌금형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A법을 지키지 않을 시, B벌금형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5. A법을 지키지 않을 시, B벌금형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Q6. A법을 지키지 않을 시, B벌금형이 부과될까요?

위의 차이에 대해 우리는 국어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일상경험에서도, 배웠지만, 완벽한 정립이 되어있지 않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 국어 및 내신 국어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위의 차이를 '완벽하게' 처리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어'라는 과목을
'교육학'기반으로 보기도 하고
'국어학', '국어국문학'기반으로 보기도 하며,
때때로 '언어학', '인문학', '논리학'영역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때때로 물리학, 경제학, 법학 등판하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해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는
국어교육학 기반이지만, 과목과 학계 특성상,
특정 대학 학사, 석사, 박사 출신의 교수님들이 교육과정을 끌고 갈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의 괴리가 '정확한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쯤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알아들으셨어야 하는데,
주변을 보면 도무지 불안하니,
또는 자신의 논리와 사고를 정확히 인식하고 교정하기를 어려워하니

마지막 딱 한 마디 드리면
서울대 정시 컷이 이제 0.15%입니다.
1000명 중에 1.5명.
2000명 중에 3명입니다.
한 해 20명 남짓이 그나마 서울대 국어교육과,
상당수는 고시를 비롯해 다른 진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능 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며, 그래서 이 수업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당신은 매우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2009학년도 수능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0.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4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②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42.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

(나)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입니다.

통념-주장+근거+예시

사례 → 원리 : 필연적

*필연적=필연성=항상

*사례=개별사례=개별자수준인과

*원리=일반원리=집단수준인과

재반박+근거+예시

사례 → 원리 : 필연적

C1복잡성 C2특이성 인정

여전히, 가장중요=필연적

*필연적=필연성=연관

통념반박+근거+예시

사례 → 원리 : 개연적

반박 근거 : 귀납 반례

C1 복잡성 C2 특이성

독서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주제 위치

: 첫 단락 + 첫단락 끝부분 + 두 번째 단락 첫부분 집중 ⇒ 전체 연결되는 주제 흐름 잡기

2. 구조 : 문장 S O C Ad V 처리 + 반복, 강조 체크

3. 구조 :

문단.글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방식+표지(지시/연결),

4. 최근 지문의 출제양상 :

정보군집 단독문항 출제, 상호텍스트성 – 한 지문에 여러 주제 복합, 원리 지문 – 이해 적용 요구, 필요시 표, 그림, 그래프 등으로 그려 처리 요구, 수학 공식 이해 적용 요구, 인과/원리는 무조건 정보가치 높음

아래의 구조와 내용 그대로 정독,
앞 페이지 지문을 아래의 구조 내용만 가지고 이해해봅니다. (지문 상관 없이)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통념.도입.주장.근거.예시
주장 : 항상(필연성).
상응 원인 ➜ 어떤 결과
사례 ➜ 일반화
개별자수준인과➜집단수준인과

2 P통념반박.주장.근거.예시
반박 : 개연성
근거 : 반례

3 CS + 예시
C1 복잡성 C2 특이성

4 재반박.주장.근거.예시
주장 : 연관됨 (글에선 필연성)
개별자수준인과➜집단수준인과
항상(필연성)
인정 : C1 복잡성 C2 특이성
반박 : 필수적 요인이라면
주장 : 필연성 유지

주제 구조 집중

통념 :
귀납적으로도
원인과 결과 필연

반박 :
반례 근거
원인과 결과 개연/독립

이유 :
복잡성과 특이성

재반박
인정 : 복잡성 특이성
반박 근거 : 가장 중요한 요인과의 필연성은 유지

상당히 간단한 지문이지만, 수업에서 설명했듯

paraphrase 즉
바꾸어쓰기의 문제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평가원 오피셜로 밝힙니다.

일반인의 머릿속

읽고 / 이해
= 독 / 해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읽는다?
시력 수준. 하지만 시력을 측정하는 시험일까?
상위 0.1%의 비밀.
자신이 어떤 사고 과정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인지와 조절 능력, 즉, '초인지 능력' 의 부족 아닐까?

평가원 출제 교수님의 머릿속

이해는 무엇일까?
평가원은 다음과 같이 사고와 이해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

어휘 개념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 **사고=이해**
적용.창의적

즉, 어휘와 개념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사고/이해할 수 있는지,
추론적으로 사고/이해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사고/이해할 수 있는지,
적용.창의적으로 사고/이해할 수 있는지?

물론 위의 정보는 표상적 지식이라 절차적 지식인 수능 국어 문제 풀이능력과는 별개로 보일지 몰라도, 그렇다면 모든 절차적 지식에는 이론이 없어야 한다. 즉, 수능 국어에 관련된 본질적 이론이라는 기본 소양 기반으로 수능을 바라보아야만 제대로 된 접근 틀을 확립할 수 있다.

평가원이 말하는 사실적 사고/이해

윗문은 출제매뉴얼, 학습방법안내, 교과서, 교육과정을 참고바라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풀어 설명하면

사실적 사고는
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사고/이해 차원으로

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과정 => 상향식 독서모형
+
글의 내용을 내 머릿속의 어떤 단어, 개념으로 바꾸어 이해/연결하는 => 하향식 독서모형
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원이 말하는 추론적 사고/이해

윗문은 출제매뉴얼, 학습방법안내, 교과서, 교육과정을 참고바라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풀어 설명하면

내용과 구조와 과정에 추론적 사고/이해 차원으로

연역, 귀납, 변증, 유추, 논증등의 과정으로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평가원이 말하는 비판적 사고/이해

윗문은 출제매뉴얼, 학습방법안내, 교과서, 교육과정을 참고바라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풀어 설명하면

지문내용 및 지문 외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모든 사고를 비판적 사고라 하며
특히, 평가/비판하는 유형은
❶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대 서술
❷ 상대방이 언급한 범주 내의 비판

잘 생각해보면,
글의 A내용을 찾아 지문의 A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사실상 시력 문제는
중~고1 정도에서 이미 끝나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지문에 적용합니다.

>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 사람들은

시작부터 사람들... 통념으로 시작합니다.

>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정보가치가 높은 내용
즉, 주제는 paraphrase를 통해 반복한다고 했고,
앞 뒤 문장 반복되는 말...
당연히 원인과 결과는 보이지만..

항상=필연성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면 글을 읽는 자세의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7~21기출로 지문 연습이 되어있다면, 이 정도 지문과 문제풀이는 2~3분 컷이 나야합니다.)

>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예시는 결국 앞 내용의 주제/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바꾸어 쓴(paraphrase)한 것 뿐이고...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또한 바꿔 쓴 정보가치 높은 핵심 소재는?

평가원의 머릿속

귀납 추론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 원리를 밝히는 사고 과정

출제의도는 결국?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례 = 개별적인 사례 = 개별자 수준의 인과

일반 원리 = 일반적인 인과 = 집단수준의 인과

일반인의 머릿속 vs 평가원 머릿속

Q. 정보는 있는 그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야?

어떻게 처리해야 이해가 되시나요?

1. 있는 그대로

2. 말하는 사람 의도 생각해서,
내 머릿속 어떤 단어, 개념, 글의 어떤 내용으로 바꿔서?

사람들은 그랬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앞 내용 요약 정리. 귀납 사례 => 결과 필연적

당연히 예상되죠?
귀납법은 반례 하나만 나와도 out 인데...

2단락 이어 갑니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보자 마자 역접, 통념 비판이구나!
라는 의도와 내용 구조가 보입니다.

필연성 ⟷ 개연성

평가원 머릿속

필연성 : 항상 성립. 100% or 0%
개연성 : 가능성. 1~99% 관련은 있으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관련은 없음
***가능세계 참조**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통념 반박으로
상대방이 주장 근거 예시로 말한

스트레스가 필연적 원인 : 상대의 주장 근거
=〉 발생시키는 확률을 높일 뿐 : 근거 비판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 내용 바꿔서 반복

그렇게 된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주장 반복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앞 주장에 대한 근거로
반례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요약 정리.

이제 3단락으로 갑니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S

3단락인데, 이처럼. 앞 내용과 같은 입장입니다.
즉 통념 반박.
그런데?
통념 반박 즉 문제제기(P)
를 했으니 해법(S)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내용은 S 해법이 아닌
C 문제의 원인입니다.

C1 C2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마지막 4단락

이에 대해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
의도는 앞 내용 반박

즉
통념 – 반박 – 반박 유지 – 재반박
이라는 구조 흐름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 내용의

'연관'
연관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❶ 필연적 100% 아니면 0%
❷ 개연적 가능성 1~99%
위 ❶번 ❷번 선지 어디에 가깝나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은 고1~2 수준입니다.
의도를 봐야하고
글의 구조를 봐야하며
반복/바꿔써지는 흐름에서
글쓴 의도 파악이 보여야합니다.

물론

$$f(x) = 2x^2$$

식에서

$$f'(x) = 4x$$

와 같이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국어교육'에서 말하는 나름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학문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 역시
좁은 시야이며,
다양한 우리의 사고방식의 확장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윗 문장은 3단락에서 말한
C1 복잡성 C2 특이성
인정,
하지만,
여전히 필연적!
이라고 반박합니다.
반박-주장을 했으니 근거가 이제 나오겠죠
다음 문장봅니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수적 – 필연성 – 필연성
바꾸어, 반복해 쓰며 다시 주장 근거를 밝힙니다.

즉, 글의 구조를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는 지문입니다.

통념-주장+근거+예시

사례 → 윗리 : 필연적

*필연적=필연성=항상

*사례=개별사례=개별자수준인과

*윗리=일반윗리=집단수준인과

재반박+근거+예시

사례 → 윗리 : 필연적

C1복잡성 C2특이성 인정

여전히, 가장중요=필연적

*필연적=필연성=연관

통념반박+근거+예시

사례 → 윗리 : 개연적

반박 근거 : 귀납 반례

*개연적=개연성=별개=독립적

C1 복잡성 C2 특이성

40.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주제 구조를 묻는 문항이라 했습니다.
주제 구조 찾으면 됩니다.

일반인의 머릿속

Q. 문제부터 보고, 지문에서 파악할 내용을 찾아서

선지의 정오 판별을 (주장)
지문 내용 근거로 하는 것 아니야?

=> 아니라고 했습니다.
10년전의 저는 그렇게 풀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주장 + 근거 : 즉 논리력으로 해결하는 것 입니다만...
그렇게 해결이 된다구요?

그렇다면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선지는 왜 틀렸죠?
1단락 일반인 상식을
2~3단락 반박 + 근거로 논리적 비판 하는데?
틀린 선지가 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선지입니다.

하지만?

평가원의 머릿속

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 + 구조
즉 내용과 구조를 처리하는 것이
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분포를 가장 높여야겠군

40.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논리적으로 옳은 선지가 아니라.
서술방식
즉, 글의 전개방식이라는 개념
즉, 주제 구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④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통념-주장+근거+예시

사례 → 원리 : 필연적

***필연적=필연성=항상**
***사례=개별사례=개별자수준인과**
***원리=일반원리=집단수준인과**

재반박+근거+예시

사례 → 원리 : 필연적
C1복잡성 C2특이성 인정
여전히, 가장중요=필연적
***필연적=필연성=연관**

통념반박+근거+예시

사례 → 원리 : 개연적
반박 근거 : 귀납 반례
***개연적=개연성=별개=독립적**

C1 복잡성 C2 특이성

그러면 5번 선지는 왜 틀렸을까요?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단락~2~3단락 흐름까지만
통념 – 반박 – 원인 – 재반박에서
빠뜨린 내용이 있으니
주제의 원리인 '통일성(포괄성)'에서 out

4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②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역시 마찬가지 문제인데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왜 맞고 왜 틀린가요?
근거 명확히 나오나요?
옳게 고치면?
위의 1번 선지는 고칠 수 있다구요?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그럼 이건 왜 틀린걸까요?
2~3단락 근거로 맞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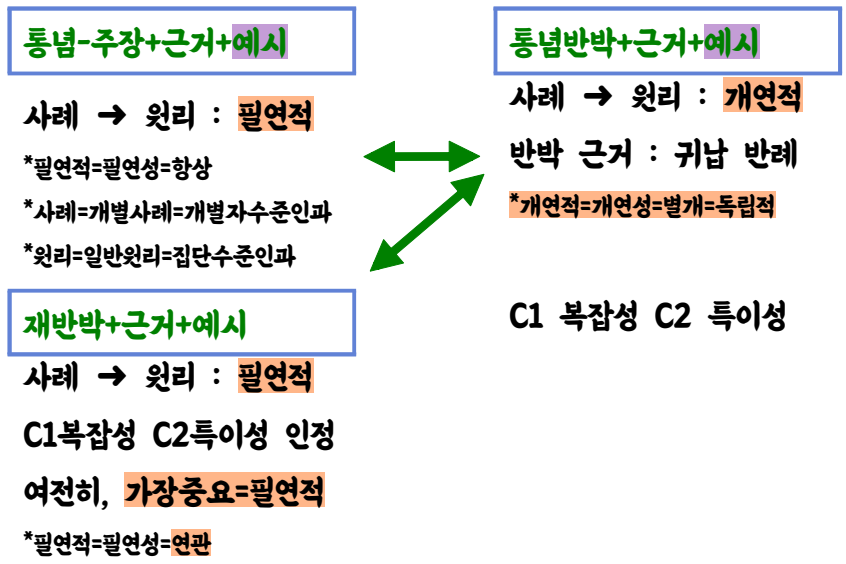
안 되는 이유

1. 하나 하나 따지라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며
(선지의 논리/정오 판별을 하나 하나 따지는 유형은 5지 선다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ㄱㄴㄷ 합답형으로 개발 됨. 그래서 탐구는 ㄱㄴㄷ, 수학도. 그렇게 출제)

2. 저러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3. 단어 하나 하나 단위로 판단하는 과정에 사고과정이 꼬여 실수가 유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정답이 5번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까와 같습니다.



***개연적=개연성=별개=독립적**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이 선지는 2~3단락 내용만 포괄하는 내용이니
전체 주제를 담지 못해서 out

그런데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5번 선지도 전체 주제를 담지 않고 2~3단락 내용 아닌가요?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28페이지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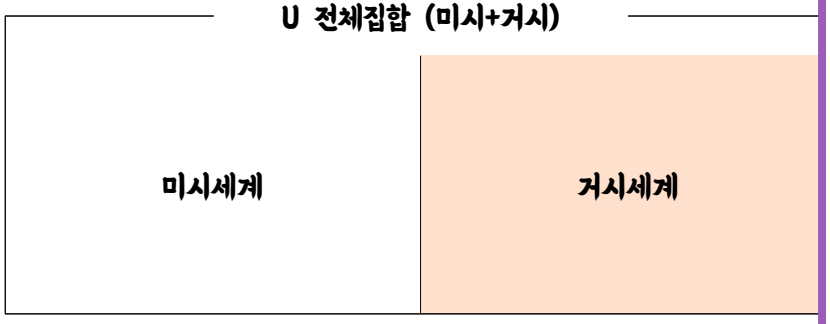
기호논리학...이라 쓰고 수능 시험 범외 외.

상식적, 국어사고 합시다!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 문장을 말한 순간 오른쪽 주황색 세계를 말한 것이고, 이는 거시세계가 아닌 세계에 대한 함축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흰색 좌측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A 이면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B B이다

A이면 B이다

라는 명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B	확률은?
O	O	
O	X	
X	O	
X	X	

즉, A에 관하여 옳고 그름, 각각에 대해 B도 옳고 그름

즉,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위의 4가지 경우 모두에 대한 진위 판정이 되나요?

정보량이 불충분해 거의 모든 지문에서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합니다. (본 교재 27페이지)

예를들면,

A 이면 B이다

군인이라서 자유를 억압받는다. 따라서,

군인이 아니라면 자유를 [A가 아니면] [ ] 이다

발톱이 날카로운 동물은 육식을 한다. 따라서,

발톱이 날카롭지 않은 동물은 [ ]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 ]

즉

A이면 B이다

가 참이라면, 생각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답해봅시다

A가 아니면 [ ] 이다

보통은

A이면 B이니까

A아니면 B도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실 확률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A이면 B이다

라는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A가 아니면 [ ] 이다

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따라서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도 함축! 그래서 전체 포괄 5번선지! 라는 출제의도 파악

가능합니다.

42.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

(나)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원리 : 원인 / 결과

- 영희네는/좋은 씨앗을 심어/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개별사례1/ 원인 / 결과 성립

- 철수네는/좋은 씨앗을 심었으나/물을 제때 주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개별사례2/ 원인 / 결과 불성립

- 우리 집은/좋은 씨앗을 심었으나/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개별사례3/ 원인 / 결과 불성립

그런데?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원리 : 원인 / 결과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필연성?!

개별사례 2, 3에서 반례가 있음에도?

아! 역시 전체 포괄 주제.

통념-주장+근거+예시

사례 ➜ 원리 : 필연적

*필연적=필연성=항상

*사례=개별사례=개별자수준인과

*원리=일반원리=집단수준인과

재반박+근거+예시

사례 ➜ 원리 : 필연적

C1복잡성 C2특이성 인정

여전히, 가장중요=필연적

*필연적=필연성=연관

통념반박+근거+예시

사례 ➜ 원리 : 개연적

반박 근거 : 귀납 반례

*개연적=개연성=별개=독립적

C1 복잡성 C2 특이성

즉, 반박 근거인 개별사례 2,3라는 반례가 있음에도 재반박.

여전히 가장 중요. 필연성 유지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정답 4번 끝!

선지 판단 방법

1. 선지 내용 하나 하나 OX 옳게 고침 이게 아니라
2. 글의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내용 파악한 뒤
3. 문제에서의 출제 의도 고민 생각하며,
4. 2 내용 바탕 좁히고, 정답 가능성 높은 선지 집중 판단

2008학년도 수능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우선 할인율의 개념부터

가시는 길 관짝소년단이

소중히 모십니다.

- 인호상조

지금 500만윗 내시고 5년 뒤 550만윗 돌려 받으시는 조건!
지금 가입하시면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OK 캐쉬백 인호포인트 100만 포인트 바로 지급해드립니다!

위의 상품 어떤가요?
지금 500만원씩 5년 뒤 550만원을 돌려주고
지금 가입하면 100만원까지?
결국 650만원이 되니까 이득인가요?
(원래는 복리법에 의한 계산을 해야하지만, 복리법 설명 자체가 30분 짜리 수학 개념 강의라서, 간단히)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게 할인율!

예를들면, 어떤 상품이 있는데, 지금 가입하면
내년에 11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11억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현재가치		내년가치
?	⇦	11억

여기서 지문은 이자율(이자=금리)을 바탕으로 설명

현재가치	이자율 10%	내년받을 돈
10억	⇨	윗금 10억 이자 1억 전체 11억

반대로 할인율이 10%라면?
내년 11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현재가치	할인율 10%	내년가치
10억	⇦	윗금 10억 이자 1억 전체 11억

그렇다면 인호상조의 상품은?
즉, 할인율에 따라서 가입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5년간 할인율이 10%라면
5년 뒤 550만원의 현재가치는 500만원
가입하면 바로 받는 100만원까지 해서
환산한 현재가치는 600만원이니
현재 내는 돈 500만원, 받을 돈의 가치는 600만원
결국 100만원 개이득!

현재가치	할인율 10%	5년 뒤
500만원 +100만포인트 = 600만원	⇦	550만원

하지만, 5년간 할인율이 50%라면? (550/1.5)

현재가치	할인율 10%	5년 뒤
366만원 +100만포인트 = 466만원	⇦	550만원

낼돈이 500만원인데
현재 가치 환산하면 466만원...
손해군요.

잘 이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배운대로 주제 구조 잡아도 이해가 안 되면?

1. 지문의 정보 불충분
2. 지문의 논리 완결성 문제
3. 출제 의도
4. 어휘력, 평가원, ebs 연계 배경지식 문제

공부하면서 쌓으면 됨.

해결방법은?

1. 주제
2. 구조
3. 처리가능 정보 집중
4. 어휘력, 배경지식 바탕 바꿔쓰기!

다음의 주제 구조 처리에 집중.
지문 관련 없이 구조 – 바탕 내용 이해 후
지문 뚫습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상식도입.주제.정의.예시
할인율 : 미래가치⇨현재가치로 환산 가능. 이자 역 개념.

2 주제세팅
공적 차원의 할인율=사회적 P
S1 시장이자율
S2 민간자본수익률

3 근거-주장
상식-근거-주장 S1
상식-근거-주장 S2

4 반박.주장.근거.원리
반박
근거 1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역할 다름
근거 2
할인율 ⇧ 미래세대 가치 ⇩

주제 구조 집중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위에서 설명드린 할인율 내용 바탕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지문에서는 정보량이 많아져
1. 물가상승
2. 투자기회
3. 불확실성
과 같은 넘버링이 필요하니 지금 연습하기 바라며,

결국 주제 : 할인율 세팅 정의 및 예시 설명 후
2단락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나 기업- 할인율에서
공공사업 할인율 = 공적 차원의 할인율 = 사회적 할인율
로 흐름 정리
P - S1 시장 이자율 or S2 민간자본 수익률
이어지는 흐름 봅시다.
3단락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 초점 두고 보면

주장 : S1 시장이자율 = 사회적 할인율
상식으로 도입하여, 근거 : 미래 금액 현재가치 환산 가능

주장 : S2 민간자본수익률 = 사회적 할인율
근거 : 기회비용

이제 결론단락 갑니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보이자 마자 역접. 비판.
당연히 근거가 앞으로 나오겠죠

우선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근거1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근거2

어려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리를 바탕으로 다시 주장 정리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상식도입.주제.정의.예시
할인율 : 미래가치⇨현재가치로 환산 가능. 이자 역 개념.

2 주제세팅
공적 차원의 할인율=사회적 P
S1 시장이자율
S2 민간자본수익률

3 근거-주장
상식-근거-주장 S1
상식-근거-주장 S2

4 반박.주장.근거.원리
반박
근거 1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역할 다름
근거 2
할인율 ⇧ 미래세대 가치 ⇩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출제 의도는?
주제 + 구조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틀린 것이 아니라,
주제는 통일성(포괄성+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S1 주장.
포괄성 out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역시 주제 통일성 out
범주는? 공공분야인데 자본시장으로 갔으니. 범주out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S1 S2 모두 민간부분의 수익률과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에 적용. 즉 인과/순서 - 구조가 바뀜!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정확한 주제 정답!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제 문제도 결국은
논리 보다는 국어 사고 국어 논리고 갑니다.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A라면 B이다
국어적으로는
~A라면 ~B이다.

즉, 논리적으로는

민간분야에서 투자	공공부분에서 투자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가능
불가	불가

위와 같이 가능한 4가지 모두를 따져야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운대로 주제 구조 잡아도 이해가 안 되면?

1. 지문의 정보 불충분

2. 지문의 논리 완결성 문제
3. 출제 의도
4. 어휘력, 평가원, ebs 연계 배경지식 문제
공부하면서 쌓으면 됨.

해결방법은?
5. 주제
6. 구조
7. 처리가능 정보 집중
8. 어휘력, 배경지식 바탕 바꿔쓰기!

지문의 정보 불충분으로 판단 어려움.
따라서?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A가 투자 가능 / B가 투자 할 필요 없음
=
A가 투자 불가능 / B가 투자 할 필요 있음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정답 5번 끝

이게 바로 평가원이 생각하는 국어 논리
즉, 의사소통에서 쓰이는 확률이 높은 논리입니다.[8)]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8) 자세한 설명은 하고 싶지 않고, 고3 국어 수업 시간에는 부적절 하지만, 생각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부연하면,

민간분야에서 투자	공공부분에서 투자	(가능/불가 확률이 동일하다면) 각 사건의 확률은?	민간가능 공공불필요 참일 때 참일 확률은?
가능	필요	1/4	
가능	불필요	1/4	
불가	필요	1/4	압도적 높음
불가	불필요	1/4	

따라서, 국어적 사고에서는 A일 때 B가 참이라면, ~A일 때 ~B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도 명쾌하게 해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논리학 시험이 아닌 수능 국어 시험을 준비하며, 또한 논리학에서도 위에 대한 내용은 상당한 논쟁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선지를 정리하면

	주장	근거	할인율
❶	반대		⇩낮은
❷	반대		⇧높은
❸	찬성		⇧높은
❹	찬성		⇧높은
❺	찬성		⇩낮은

2번 선지만 다른 논리이니 답!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 수능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흐름은

>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지문 원리	
사회적 할인율	미래세대 이익
⇧ 높으면	⇩ 저평가

	주장	근거	할인율
❶	반대		⇩낮은
❷	반대	미래세대 이익 저평가⇩ 이므로	⇧높은
❸	찬성		⇧높은
❹	찬성		⇧높은
❺	찬성		⇩낮은

2008학년도 9월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 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_1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1을 획득하고, 특정 시점 t_2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2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_N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_1부터 d_N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t_1	d_1
t_2	d_1+d_2
⋮	⋮
t_N	$d_1+d_2+\cdots+d_N$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로 유효하려면 t_1에서 t_N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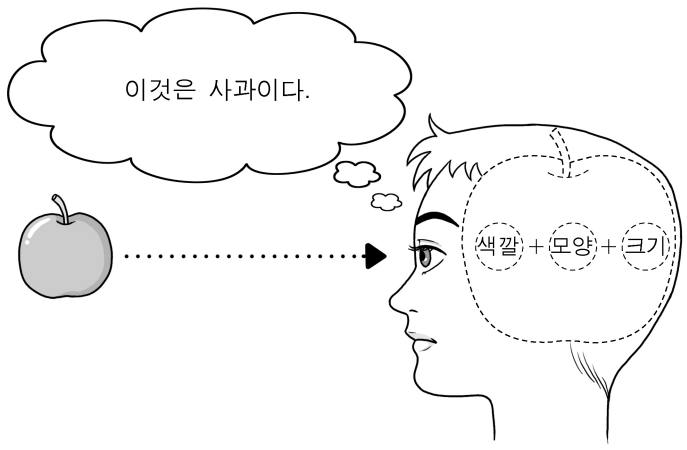
36.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감각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
②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의 한계
③ 인간의 감각 기관의 발달 과정과 그 한계
④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⑤ 인간의 의식 발달의 조건과 생물학적 한계

37. '철수'의 사고 과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어떤 것의 속성인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은 뒤, 이 세 개의 관념을 종합하여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판단한다.



①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②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③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④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38. 위 글의 주제를 함축한 말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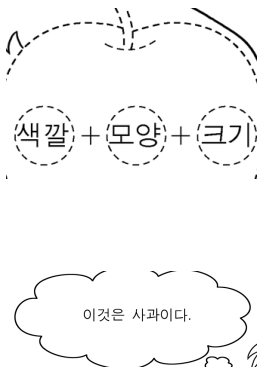
① 이 강의실이 어제의 이 강의실 맞나요?
② 오늘은 도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③ 여러분은 평소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④ 우리는 곧잘 우리 자신이 한 약속조차 잊곤 합니다.
⑤ 오늘은 덧셈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9. ㉠의 어간 '불구하-'는 일부 어미와만 결합한다. 이와 같은 용언이 <u>아닌</u> 것은?

① 송아지가 <u>애처롭게</u> 울었다.
② <u>허구한</u> 날 팔자 한탄만 한다.
③ 친구의 집은 <u>막다른</u> 골목에 있다.
④ 나는 <u>서슴지</u> 않고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⑤ 핵무기의 <u>가공할</u> 파괴력을 잘 알고 있다.

평가원의 머릿속

인식론

1.대상	2.감각경험	3. 사고
=세계=사물	=5감=실험=관찰 =경험적 지식	=생각 =연역,귀납,유추,변증, 논증...
인간 외부	눈.코.입.귀.촉. 신경세포	뇌
		
전통적 논쟁1. 인간은 대상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가?		
대상의 본질		본질 (있다)
대상의 본질		(없다)
이 글에서는? 대상의 본질을 우리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가? Y or N 답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기출연계도입.인식론주제

1.세계⇨2.감각⇨3.사고
3-1. 감각경험결과 특수 사례
3-2. 귀납
3-3. 일반화
1.사물/사태⇨2.감각⇨3.지식
P.Q 총체적 인식 도달 가능?

2 주제세팅 + 도식화로 원리

*주제세팅 구간 :
사물 = 의식 밖 독립+시간에 따라 변함
C 시간 ⇨ E 사물 변함

1.사물⇨2.(모사?)⇨3.사고
도식화 참조
1Data ⇨ 3육면체

3 주장+근거 = P + C

사고 = 시간 독립 데이터 고정
C 시간 ⇨ E 데이터 안 변함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물
시간에 따라 안 변하는 데이터
당연히 본질 알 수 없음

4 요약.주장.근거.원리

C 시간 ⇨ E 사물 변함
C 시간 ⇨ E 데이터 안 변함
결론 : 우리의 사고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

주제 구조 집중

시간대		추가정보	누적정보	
t1	⇨	d1		
t2	⇨	d2	d1	
t3	⇨	d3	d1 d2	
즉, t1에서 추가된 d1 정보는 t2, t3가 되어도 t1에서의 정보d1 으로만 존재함.				

36.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감각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

주제를 생각하면?

'시간'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

②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의 한계

주제를 생각하면?

한계 X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정된 데이터의 차이가

대상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게 한다.

③ 인간의 감각 기관의 발달 과정과 그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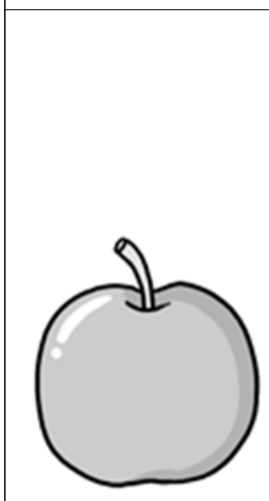
감각기관 발달 없음

주제 포괄성 out

④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정확한 주제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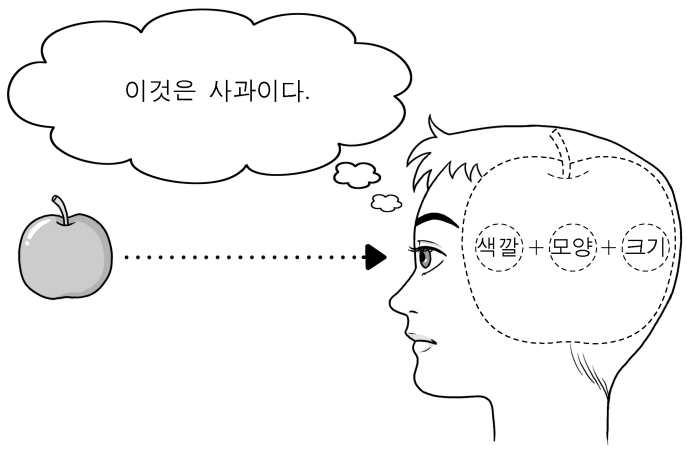
1.대상	2.감각경험	3. 사고
=세계=사물	=5감=실험=관찰 =경험적 지식	=생각 =연역,귀납,유추,변증, 논증...
인간 외부	눈.코.입.귀.촉. 신경세포	뇌
		

이 사고과정의 한계가 주제

37. '철수'의 사고 과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것의 속성인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은 뒤, 이 세 개의 관념을 종합하여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판단한다.



보기내용 바탕 정리하면?

시간대		추가정보	누적정보	
t1	⇨	d1 색		
t2	⇨	d2 모양	d1 색	
t3	⇨	d3 크기	d1 색 d2 모양	

즉, t1에서 추가된 d1 정보는 t2, t3가 되어도

t1에서의 정보d1 으로만 존재함.

즉, t2에서 t3에서 색(대상)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게 고정!

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정답 5번 선지

발췌독하면? 단어 하나 하나 실수 유발 가능

③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모양, 크기, 색 모두 대상

2단락 초반부 주제 세팅 파트

시간에 따라 대상은 변한다.

당연히 변했겠구나!

즉, 주제 구조 집중시 처리 가능한 근거.

①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d1시점 t1 이므로 크기d3는 당연히 없지

②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d1 시점 t1 색이므로, 당연히 알 수 없음.

④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d2 시점 t2이므로, 색 d1은 남아있음

38. 위 글의 주제를 함축한 말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강의실이 어제의 이 강의실 맞나요?

어제=t1 시점 d1=강의실 이므로,

오늘=t2 시점 d2≠d1

정답

② 오늘은 도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③ 여러분은 평소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④ 우리는 곧잘 우리 자신이 한 약속조차 잊곤 합니다.
⑤ 오늘은 덧셈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문 뚫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기존 지문들 접근 틀 바탕으로 보시면,
다음의 필기 내용이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잡으면
1단락,

>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1. 대상
2. 감각 경험
3. 사고

라는 틀에서의 인식론 세팅이 보입니다.

3. 사고 과정에서는

3-1. 감각 경험 결과의 개별 사례 데이터를
3-2. 귀납 추리 하여
3-3. 일반 원리로 도출합니다.

인간은 감각과 / 더불어 사고를 통해 / 세계를 인식한다.

2. 감각경험. /3.사고 / 1.대상.세계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 일반화하고

3. 사고 /3-1. 감각경험결과 개별사례 / 3-3.일반원리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3-3.일반원리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3-3.일반원리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본질을 알 수 있나?
문제 제기하며 2단락으로 갑니다.

이해가 어려울게 보이니, 예전 지문 특성상 도식화 방법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 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_1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1을 획득하고, 특정 시점 t_2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2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_N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_1부터 d_N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1단락~2단락 초반부 주제 세팅 부분
많이들 놓쳤을 텐데, 구조를 잡다 보면 3단락 가서라도 주제가 잡혔을거에요!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C 시간 ➜ E 사물은 변함
그리고 나머지는 도식화로 우리의 인식 과정을 보임

시간대		추가정보	누적정보	
t1	⇨	d1		
t2	⇨	d2	d1	
t3	⇨	d3	d1 d2	
즉, t1에서 추가된 d1 정보는 t2, t3가 되어도 t1에서의 정보d1 으로만 존재함.				

이것으로 이해하고 3단락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로,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2단락
C 시간에 따라 ➜ E 사물은 변화

3단락
C 시간에 따라 ➜ E 관념은 변화 안 함

결국?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로 유효하려면 t_1에서 t_N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계속 반복

C 시간 ➜ E 사물 변화
C 시간 ➜ E 사물에 대한 데이터 고정
당연히, 우리는 본질 모름. 끝

2007학년도 수능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건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건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2 + 3 = 5'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2 + 3 = 5'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앎[知]'이란 어떤 능력이나 정보의 소유를 의미한다.
② 절차적 지식은 다른 지식 유형의 기반이 된다.
③ 표상적 지식은 특정한 수행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④ 경험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의 일종이다.
⑤ 감각 경험의 사례를 근거로 선험적 지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34.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2 × 4 = 8'은 모른단다.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35.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36.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천명(闡明)되기도
② ⓑ : 습득(習得)한
③ ⓒ : 의거(依據)하여
④ ⓓ : 형성(形成)된
⑤ ⓔ : 별개(別個)의

평가원의 머릿속

지식의 종류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지식의 유형
1. 능력 = 절차적 지식
2. 정보 = 표상적 지식

2 정의 예시 대조
1. 절차적 지식의 정의, 예시
2. 표상적 지식과 대조

3 정의 예시 대조
2. 표상적 지식의 정의, 예시
1. 절차적 지식과 대조

4 지식의 유형 분류 2
2-1. 경험적 지식
2-2. 선험적 지식
2-1. 경험적 지식 정의. 예시

5
2-2. 선험적 지식 정의. 예시

주제 구조 집중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경험의 분류 잘 알고 계시고,
위의 구조 바탕 적용하시면 충분히 지문을 뚫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거에요.

바로 문제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앎[知]'이란 어떤 능력이나 정보의 소유를 의미한다.
1. 어떤 능력 = 절차적 지식.
2. 정보의 소유 = 표상적 지식
바로 주제.

② 절차적 지식은 다른 지식 유형의 기반이 된다.
1. 절차적 지식은 능력인데? 좁히고 발췌독.

③ 표상적 지식은 특정한 수행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 표상적 지식 ≠ 1. 절차적 지식. 수행능력.
맞습니다요

④ 경험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의 일종이다.
2-1. 경험적 지식. 당연

⑤ 감각 경험의 사례를 근거로 선험적 지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2-1. 경험적 지식 vs 2-2 선험적 지식
맞죠
2번 남네?
좁히고 발췌독 바로 정답!

34.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능력 소유 절차적 지식! 정답 3번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2×4=8'은 모른단다.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35.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국어 논리 베이스로 보셔야 합니다.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이 정보를 도식화 해봅니다.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 /

2. 감각 경험 / 1. 개별대상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3. 사고 과정에서

3-1. 감각 경험 결과 개별 대상 Data

3-2. 귀납 추리

3-3. 일반 법칙

아까 지문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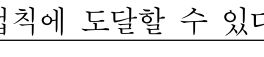
1.대상	2.감각경험	3. 사고
=세계=사물	=5감=실험=관찰 =경험적 지식	=생각 =연역,귀납,유추,변증,논증...
인간 외부	눈.코.입.귀.촉. 신경세포	뇌

여기에서 추가로

3-1. 감각경험 결과 개별대상 Data	3-2. 귀납추리	3. 일반원리.법칙
경험적 성격	 귀납추리가 바꾸지 않음	경험적 성격 유지
경험적 성격	 귀납추리가 바꿈	경험적 성격 바뀜

이 내용이군요!

ㄱㄴ 내용 추가하면?

3-1. 감각경험 결과 개별대상 Data	3-2. 귀납추리	3. 일반원리.법칙
경험적 성격	 귀납추리가 바꾸지 않음	경험적 성격 유지
경험적 성격	 귀납추리가 바꿈	경험적 성격 바뀜
당연히 경험결과 지식이니 경험적 지식	귀납추리가 바꿈 or 바꾸지 않음? 여러분의 답은? ☐	㉡자연세계 일반법칙도 경험적 지식

그렇다면 정답은?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답. 끝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35.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확장, 넘어서도록, 필연적이지 않다...

모두 바꾼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out

C E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구조 바뀌었죠?

귀납추리의 결과 일반법칙이니

일반 법칙이 귀납추리에 기초